

한인뉴스



2007·9

통권 135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외환은행 당좌대출(마이너스대출)

1. 거래통화 : USD, IDR
2. 대출기간 : 1년 이내
3. 대출금리 : 해당통화 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율
4. 기타 : 매월 이자는 사용금액에 따라 통장에서 자동 결제

*당좌대출이란? 약정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필요시 수시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대출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분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출, 수입대금간의 자금 불일치 및 결제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유동성을 해결하여 귀사의 자금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손쉬운 자금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 약정한도 만큼 마이너스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자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상환되므로 대출신청 및 상환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 약정한도 만큼 운영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경영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소중한 이익을 지켜 드립니다.

마이너스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므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거래가 빈번한 기업, 자금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BANK KEB  INDONESIA

본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창구로 문의하시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껴 보십시오.

021-574-1030 부장 이준희(구내 250), 현지책임자 Mr. Tigor, Mr. Yudhistira(구내 214)





대한민국과 대한항공은 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다양한 스케줄로 가장 편리한 여행을 약속하는 대한항공
 타임지 선정 최고 항공사의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대한민국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아는 항공사, 대한항공입니다.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자카르타 > 서 울	KE628	21:40	06:40+1	매 일
서 울 > 자카르타	KE627	15:05	20:10	매 일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0:30	08:30	화, 목, 토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3:30	11:30	일
서 울 > 덴파사르	KE629	17:00	23:00	월, 수, 금
서 울 > 덴파사르	KE629	20:10	02:10+1	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Tel: 021) 521-2180



대우증권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업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을 드립니다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www.raffles-international.org



*A World-class education for Overseas
University Pathways*



The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GAC) at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is a world class university preparation program.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은 학생들에게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소재 우수 대학교의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학업기술과 자기확신, 아카데미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Mr. Aeran Ismail, 교감에게 연락바람



기술의 차이가 접착력으로 평가됩니다

접착력의 작은 차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온 동성화학 신발용 접착제는

신발의 기능성, 생산성, 상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접착제

신발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착화시에는 인장, 굴곡, 복원을 무수히 반복하며 또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됩니다. 동성화학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 접착제 품질향상을 위해 20여년간 꾸준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신발용 접착제 분야 기술인재들의 풍부한 경험과 무한한 연구 개발의지, 철저한 현장테스트, 고객우선의 서비스정신이 창출하는 기술의 차이를 접착력으로 경험하십시오.

- 다양한 소재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 강력한 접착으로 놀라운 고정력을 발휘합니다.
- 작업성이 우수하고 일광노출시 변색이 적습니다.
- 물, 기름, 고열 등 갖가지 환경에 저항성이 강합니다.

Dongsung

NSC Ltd.

A Member of the ICI Group

P.T. DONGSUNG **NSC**

PO.BOX.No.315 Tangerang INDONESIA

Telp. (021) 591 8620 (Hunting), Fax. (021) 591 8624, 591-8915

생산품목: ■접착제 ■폴리우레탄수지 ■항성피혁용 표면처리제
■특수도료 ■접착도료 ■제지용약품 ■유화제 ■폴리올 ■의료부외품

MI-WON

Gift Set 2007



교인 여러분, 폐사에서는 다가오는 러바간을 맞이하여, 현지인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2007년 Gift Set" 을 제작, 판매하오니 교인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주문접수 : 2007년 8월 16일 ~ 9월 30일
 입금구처 : BCA Kelapa Gading 227.3009515

예금주 : PT JICO AGUNG
 주문처 : 하기창조

PRODUK BARU!*
Gula Merah
Bumbu Instan
Jahe Wangi

*sudah termasuk dalam paket gift set



Gift Set 1

Rp. 30.000,-

- ISI :
- 1 Bks Miwon 100g
 - 1 Bks MamaSuka Tepung Bumbu 25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Nasi Goreng 2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Opor 16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Rendang 2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Ayam Goreng 3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Gule 25g
 - 1 Dos Jahe Wangi (5 bks x 25g) 125g
 - 1 Dos Kopi Ginseng (6 bks x 20g) 120g
 - 1 Dos Coffee Mix (5 bks x 20g) 100g
 - 1 Gst MamaSuka Terasi Udang (20 bks x 5g) 100g
 - 1 Bks MamaSuka Gula Merah 250g



Gift Set 2

Rp. 50.000,-

- ISI :
- 1 Bks Miwon 100g
 - 1 Bks MamaSuka Tepung Bumbu 250g
 - 1 Bks Mamasuka Tepung Bakwan 10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Nasi Goreng 2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Opor 16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Rendang 2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Ayam Goreng 3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Gule 25g
 - 1 Dos Jahe Wangi (5 bks x 25g) 125g
 - 1 Dos Kopi Ginseng (6 bks x 20g) 120g
 - 1 Dos Coffee Mix (5 bks x 20g) 100g
 - 1 Bks Agar-Agar Dunia Rajawali 7g
 - 1 Gst MamaSuka Terasi Udang (20 bks x 5g) 100g
 - 1 Bks MamaSuka Gula Merah 250g
 - 1 Dos Chocolate Mochi 135g
 - 1 Bks Crackers Trenz 105g
 - 1 Btl Sambal Indofood 140 ml
 - 1 Btl Kecap Manis Indofood 140 ml



Gift Set 3

Rp. 100.000,-

- ISI:
- 1 Bks Miwon 100g
 - 2 Bks Bio Miwon 40g
 - 1 Btl MamaSuka Tepung Bumbu 900g
 - 1 Bks Mamasuka Tepung Bumbu Hot 90g
 - 1 Bks MamaSuka Tepung Roti 200g
 - 1 Bks MamaSuka Tepung Tempura 90g
 - 1 Bks MamaSuka Tepung Rempyek 100g
 - 1 Bks MamaSuka Tepung Bakwan 10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Nasi Goreng 20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Opor 16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Rendang 2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Ayam Goreng 35g
 - 1 Bks MamaSuka Bumbu Instan Gule 25g
 - 1 Dos Jahe Wangi (5 bks x 25g) 125g
 - 2 Dos Kopi Ginseng (6 bks x 20g) 120g
 - 1 Pouch Kopi Ginseng (20 bks x 20g) 400g
 - 1 Dos Coffee Mix (5 bks x 20g) 100g
 - 1 Btl Garam Gurih 300g
 - 4 Bks Agar-Agar Dunia Rajawali @7g 28g
 - 1 Gs MamaSuka Terasi Udang (15 bks x 5g) 75g
 - 1 Bks MamaSuka Gula Merah 250g
 - 1 Dos Chocolate Mochi 135g
 - 1 Bks Crackers Trenz 105g
 - 1 Btl Sambal Indofood 140 ml
 - 1 Btl Kecap Manis Indofood 140 ml

Untuk pemesanan/informasi lebih lanjut, hubungi :

PT JICO AGUNG

Jl. Perintis Kemerdekaan No.1-3, Pulo Gadung, Jakarta 13260 – INDONESIA
 Telp.: (021) 489 2908 (Hunting) Fax.: (021) 471 3277 (Attn.: Ibu Ambar, Ibu Dai)
 Mr. Kim, Keum-Bae (0811 825 963), Mr. Chung, Suk-Hong (0811 165 485)



디지털 프린팅! 편리함과 속도를 느껴보세요



제품 상담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후지제록스(주)의 안승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사무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국기업 영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 문서의 개선 방안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stragraphia?

1971년부터 후지제록스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제록스제품 공급 및 서비스를 담당함.
21개 영업지점과 70개 서비스지점 보유.

Fuji Xerox Asia Pacific Pte.,Ltd.

안 승 민
Tel : +65 9451 2358
E-Mail : seungmin_an@fujixerox.com

PT ASTRA GRAPHIA TBK

Lany Gunanto(인도네시아)
Tel : +62(21) 390 9190 Ext 1621
E-Mail : lany.gunanto@idn.fujixerox.com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회 등 100여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HP: 0818-916-566

Email: haninnews@naver.com

이 번 호 이 야 기

2007 · 9 (통권 135호)



10



22



33



26



38



56



46



58



61

10 한인사회 소식
제62주년 광복절 행사
성황리 개최

22 이선진 대사 특별기고
印尼 진출,
日과 합작 모색을

26 인터뷰 이사람
김희년
AiTi Group 대표이사

33 인니문화탐방
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가룻(Garut)

38 키워드로 보는 인도네시아
아홀리 기기(Ahli gigi)

46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
발로 뜯 내인생의 악보
레나마리아

56 세계경제를 읽는다 - 6
미국 불황 빠지면 대책 없다.

58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The Trip to Bountiful

61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황윤홍, 김은미,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62주년 광복절 행사 성황리 개최

광복의 감격, 의미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07년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이하 JIKS)에서 광복 62주년 기념식을 갖고 일제 36년간의 온갖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뜨거운 피로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이 자리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생을 버리시고 간 순국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세계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오전부터 골프대회, 바둑대회, 다양한 체육행사 및 놀이마당들을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고 결속하는 단결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000여명의 교민들이 JIKS 강당에 모인 가운데 열린 '제62주년 광복절기념식'에서 교민들은 광복의 감격과 의미를 되새겼다. 식순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에 이어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전달했다.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과 남북대화의 성공으로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린다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승은호 한인회장은 "글로벌 시대,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간 한국인으로서 나라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 교민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볼 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인니간의 교역증대로 미래는 나아질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한국동포의 단합이 필요한 때다"고 광복절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JIKS 음악부 학생들의 반주에 맞추어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며 광복절의 공식 식순을 마쳤다.





전통문화 통해 조국향수와 민족정신 고취

JIKS 강당에서는 광복절 기념식 특별순서로서 JIKS 어린이 합창단과 JIKS 사물놀이반,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의 국악인 양태실, 정경화 씨의 광복절 기념 특별 공연이 이어졌다.

자바의 영혼의 소리를 담고 있는 앙골룽을 들고 나온 40여 JIKS 어린이 합창단은 앙골룽 소리만큼이나 맑은 해맑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음률과 율동을 교민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태극기를 흔들며 자아낸 합창에서는 광복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연출했으며 자리한 교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또한 우리 전통가락의 신명 난 흥을 혼신의 힘으로 쏟아낸 JIKS 사물놀이반의 열정적인 무대도 교민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날 특별공연을 위해 한국에서 직접 오신 두분 양태실, 정경화 국악인의 신명나는 공연은 광복절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서울음대 국악과를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전수자이기도 한 정경화씨는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교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으매 좋은 것'이라며 한입으로 터져나오는 교민들의 추임새에 맞춰 춘향가 한 대목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장면을 보는 것 만으로도 교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부산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진도북춤 전수자인 양태실씨는 10분여의 짧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에게 줌처럼 접하기 힘든 진도북춤의 진수를 보여줬다. 소박한 북 하나와 하나가 되어 자아내는 고운 듯 화려한 양태실씨의 동선은 전통예술의 멋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교민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통문화를 통해 조국에 대한 향수와 민족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기회를 준 양태실, 정경화 두 국악인에게 뜻 깊은 화합의 장을 마련해준 대해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한인사회 화합의 한마당

오전 7시부터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할림 골프장에서 140여명의 교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광복절에 개최되는 한인사회 최대 골프대회이기도 한 이번 대회에도 교민들의 참여와 협찬이 줄을 잇는 등 그 준비 과정부터 뜨거운 호응을 보여줬다. 12시경까지 계속된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에서는 이석남씨가 남자 시니어 부문, 정규찬씨가 주니어 부문, 지인숙씨가 여자부문 우승컵을 안았고 김정환씨와 조예숙씨가 각각 전체 남자부문, 여자부문의 메달리스트 상을 차지했다.

오전 10시부터 JIKS 운동장 곳곳에서는 JIKS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 제기차기, 투호 놀이, 윷놀이, 훌라우프 넘기, 비석치기, 팔씨름,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광복절기념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학생, 회사원, 기업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해 즐거운 놀이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한인축구대회 준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 운동장 트랙에서는 어린아이들에서 학부모까지 참여한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귀여운 인형을 받아 든 참가자들의 얼굴엔 함박웃음이 피었다.

한편 JIKS의 대운동장에서는 각 지역별 축구팀들의 경기가 있었다. 코믹하고 맛깔스러운 진행 멘트로 매년 축구대회를 관람하고 있는 교민들을 웃음바다로 만든 안선근 교수가 또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7월 중순부터 리그전으로 치러진 축구대회 예전을 통과한 네 팀이 이날 경합을 벌였고 땅그랑 축구동호회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다. 자카르타 축구 동호회는 아쉽게 2위에 머물러야 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한인바둑대회가 한국기원에서 열렸다. 우종성,오상균씨가 A조 우승,준우승을 차지하고 양시완,김정원씨가 B조 우승, 준우승을 차지하여 ‘인도네시아 4개국 친선 바둑대





회'에 한국팀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오전 행사가 끝나고 참석한 교민들은 한인 식당인 가나식당, 다리아분식, 수라청, 씨티서울, 청기와, 한강, 한국관, 한민족, 한양, 한우리에서 준비한 점심도시락을 JIKS 교내 곳곳에서 오손 도손 모여 앉아 나누어 먹으며 정겨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체육대회와 축구대회가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운 권 추첨과 골프대회, 바둑대회, 체육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100여 한인기업들과 교민들이 협찬한 수백여가지의 상품이 준비된 행운권 발표 시간, 교민들은 JIKS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여 행운 권 추첨 번호 하나 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곳곳에서 교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아쉬운 한숨을 토해냈다. 선물의 작고 큼을 떠나서 행운권에 당첨된 교민들에게 기쁨의 박수를 쳐주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되었다. 큰 행운의 상품을 받은 한 교민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지금까지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고 이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와 참여한 교민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마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한인사회의 화합과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대운동장에 준비한 박을 참석한 교민 모두가 참여하며 터트리는 것으로 성황리에 개최된 뜻 깊었던 제 62주년 광복절 행사를 마쳤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 찬조 리스트

〈제62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정성어린 후원과 찬조에 협조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배상 -

번호	성명	회사명	상품명	수량
1	승은호	코린도 그룹	최신형 고급 핸드폰	1 대
2	강민정	솔진생 코리아	홍삼액 구입권(Rp.70만)	2 매
3	강호성	PT. ANUGRAH MOLD INDONESIA	겔러웨이 드라이버	1 개
4	강효정	솔한의원	진료권(Rp.100만)	2 매
5	구자성	일요신문	상품권	Rp. 100만
6	권흠삼	한국 석유 공사	상품권	Rp. 200만
7	김광현	PT. ASOKA	상품권	Rp. 200만
8	김남진	행남자기	16 PC DINNER SET	3 SET
9	김두련	PT. JICO AGUNG	청정원 식용유 SET	5 SET
10	김병권	K O T R A	자개보석함	1 개
11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상품권	Rp. 100만
12	김석종	PT. SERINDO	상품권	Rp. 300만
13	김성국	PT. KIDECO JAYA AGUNG	냉장고 (Rp.550만 상당)	1 대
14	김우재	PT. KOIN BUMI	무궁화 상품권	Rp. 200만
15	김육목	한타임즈	1년 구독권	5 매
16	김재민	조선일보	상품권	Rp. 100만
17	김재유	PT. DONG SUNG	핸드폰	1 대
18	김종권	그린 부동산	소형 냉장고	1 대
19	김준규	DESTEC PRIMATAMA	상품권	Rp. 200만
20	김창모	K A L	한국 왕복 항공권 (ECONOMY)	1 매
21	김충훈	PT. SERIM INDONESIA	상품권	Rp. 200만
22	김한수	김삿갓	식사쿠폰	Rp. 200만
23	류봉열	PT. HANIL INDONESIA	상품권	Rp. 100만
24	박수영	팡팡 노래방	노래방 이용권(1시간)	20 매
25	박현식	PT. DONG AN KREASI INDONESIA	핸드폰	1 대
26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소형 냉장고	1 대
27	배응식	PT. KYUNG SEUNG	티셔츠	100 장
28	백승배	PT. KOLON INA	상품권	Rp. 100만
29	서영을	PT. PRATAMA	DVD PLAYER	5 대
30	승진아	하나관광	물리아 숙박권	2 매
31	송창근	PT. KMK GLOBAL SPORTS	디지털 카메라	1 대
32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홀인원-FULL HD LCD TV 52"	1 대
33		PT. HANINDO EXPRESS	상품권	Rp. 200만
34	신창우	아시아 진주	남양 진주 목걸이 팬던트 (백금 가공)	1 점

번호	성명	회사명	상품명	수량
35	안선근	U I A	coconut shampoo set	2 개
36		U I A	coconut shower set	3 개
37	안창열	여명	홍기와 상품권	Rp. 100만
38	양승진	PT. DOSON INDONESIA	대형 여행가방	3 개
39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수건, 쇼핑백	각 160개
40	엄상배	로템 투어	상품권	Rp. 100만
41	엄석준	뉴월드 메디컬 크리닉	상품권	RP. 100 만
42	우용택	RED CAP	여성용 가방	3 개
43	이기주	LG EIN	TV(29"), DVD PLAYER, LCD 모니터(15")	각 1대
44	이기협	DAELIM INDONESIA	양식기 SET	2 SET
45	이동수	뷰티샵	사우나이용권	40 장
46	이민재	우리은행	핸드폰	1 대
47	이상일	PT. U I B	상품권	Rp. 100만
48	이승민	Y S M	퍼팅기	1 대
49	이영호	PT. SAMICK INDONESIA	기타	2 대
50		PT. SAMICK INDONESIA	홀인원-피아노	1 대
51	이완주	PT. HANIN NUSA MULYA	상품권	Rp. 200만
52	이종찬	삼성	TV(29"), DVD PLAYER, LCD 모니터(17")	각 1 대
53	이종후	PT. SUNG WON	완구 (Rp.2000만 상당)	280 PCS
54	이중기	마포	CIATER 숙박권	1 매
55	이지현	PT. ZIMMOAH	핸드폰	1 대
56	이진수	PT. SUNG BO JAYA	DVD PLAYER	2 대
57	이진호	PT. JIN YOUNG	진영 삼봉냐와	4 SET
58	이호덕	ROYAL SUMATRA	퍼터	1 개
59	이호완	서울 메디컬 클리닉	종합진단권(Rp.250만 상당)	1 매
60	이희락	한국 도자기	COFFEE SET	10 SET
61	임연식		양복	1 벌
62	장윤수	PT. HANSARAM SAKTI	상품권	Rp. 200만
63	장한덕	수출입은행	DVD PLAYER	1 대
64	전민식	PT. POWERTECH	상품권	Rp. 100만
65	전영애	HAPPY DECO	진주 목걸이	10 점
66	조규철	PT. DONG JUNG	CANON 디지털 카메라	1 대
67	조대호	뉴서울 슈퍼	상품권	Rp. 300만
68	조성국	LIG INSURANCE INDONESIA	핸드폰	1 대
69	조종수	외환은행	몽블랑 볼펜	1 점
70	최대호	동서증권	상품권	Rp. 200만
71	추길엽	PT. SUNGWON METAL	상품권	Rp. 100만
72	JONGKIE	HYUNDAI MOBIL INDONESIA	홀인원 - AVEGA	1 대
73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그림	1 점
74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퍼터	1 개

번호	성명	회사명	상품명	수량
75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COFFEE SET	3 SET
76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반바지 2벌	8 SET
77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골프공	2 BOX
78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양식기 SET	1 SET
79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가방	10 개
80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도시락 set	3 SET
81		눈사랑 안경원	안경원 상품권(Rp.50만)	4 매
82		우먼센스	파마이용권 2매, 커트이용권 3매	Rp. 100만
83		코리아 트래블	만다린 호텔 숙박권 (1박)	2 매
84		클레오 파트라	이용권 (Rp.15만)	22 매
85		ARYADUTA HOTEL JAKARTA	JP BISTRO 식사권(Rp.25만)	3 매
86			TAVERN PUB 식사권(Rp.25만)	3 매
87		DAMAI INDAH GOLF	골프이용권 (4인)	1 매
88		FOUR SEASONS HOTEL	4인 뷔페 식사권	1 매
89		FOUR SEASONS HOTEL	4인 DIM SUM EXTRAVAGANZA 식사권	2 매
90		GUNUNG GEULIS C.C.	골프이용권 (4인)	1 매
91		GRAND HYATT JAKARTA	식사권 (Rp.50만)	1 매
92		JW MARRIOTT	저녁 부페 이용권	1 매
93		PADANG GOLF MODERN	골프이용권 (4인)	1 매
94		RITS-CARLTON HOTEL	저녁 부페 이용권	1 매
95		RIVERSIDE GOLF CLUB	골프 이용권 (4인용)	2 매
96		ROTC 동우회	냉동고	1 대
97		SHANGRI-LA	2인 숙박 조식권	1 매
98		SULTAN HOTEL	숙박권	1 매
99		PT. KONES	축구공	10 개
100		백악관	음료수	Rp.1100만 상당
101		다솔	식사쿠폰	Rp. 100만
102		토박	식사권(Rp.50만)	4 매
103		가나	식사권(Rp.20만)	5 매
104			도시락	100 인분
105		다리아 분식	김밥	100 인분
106		수라청	도시락	150 인분
107		씨티서울	도시락	100 인분
108		청기와	도시락	100 인분
109		한강	도시락	250 인분
110		한국관	도시락	100 인분
111		한민족	도시락	100 인분
112		한양	도시락	100 인분
113		한우리	육개장	100 인분

조국의 민주평화통일 염원 민주평통 제13기 서남아협의회 출범

지난 8월 10일 자카르타의 그랜 벨리아 호텔에서서는 서남아 7개국에서 온 주요 한인인사들과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 정용칠 공사등 대사관 임직원과 장득순 민주평통 기획관리관장, 황인수 전문위원 등이 모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3기 서남아협의회 출범식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김광현 협의회장은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로부터 제13기 서남아협의회장으로 위촉받고 2년간 서남아 한인사회의 통일의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뜻 깊은 역할을 하게 됐다.

김광현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여정부 들어서서 남북간 교역이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 여명이 남북을 오갔다. 특히 오는 8.28일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되는 이때 평통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용칠 주인니공사가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위촉받은 자문위원들은 한인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사로 한인회의 천거와 대사관의 추천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용칠 공사는 “민주평통이 조국 통일을 위해 자주 모임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대사관이나 한인회와 함께 우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자문에도 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0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
13기 서남아협의회 출범식 및
총회’에 참여한 서남아
민주평통위원들과 대사관,
한인회 임원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이다. 국민의 통일외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지역대표, 직능대표, 재외동포 인사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건의, 국내의 통일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남아 민주평통협의회는 이번 인도네시아에서의 총회를 시작으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평통이 자주 모임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조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명단

	성 명	회 사
1	김 경 곤	Sukwang Indonesia
2	김 광 현	Asoka Putra
3	김 성 국	Kideco Jaya Agung
4	김 수 용	Indo Tehnik
5	김 욱 찬	Garuda Twin
6	김 희 연	AiTi Investment
7	박 영 수	K-TV
8	박 철 구	Koryo Puspita
9	배 정 옥	Aneka Golden Inv.
10	승 진 아	Hana Tour
11	정 용 완	Hung A Tire
12	조 규 철	Dong Jung Indonesia
13	최 재 혁	Hilon Indonesia
14	채 영 애	부인회장
15	현 정 규	Mekar Sammi Jaya

부산 시립 무용단 수라바야 공연

- 사물놀이, 부채춤으로 관중들 흡입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임택선)는 수라바야 시청이 7월 22일 수라바야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주관한 자매결연 국제문화행사에, 부산광역시 시립 무용단(공영훈 단장 외 15명)이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주요 내빈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라바야시 국제문화행사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18개 시의 무용단이 참가했다. 이중 부산광역시 시립 무용단이 공연한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선보인 한국무용단의 인기는 참가한 무용단 중 가장 으뜸이었으며 많은 관중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또한, 당일 오후에는 Ciputra G Walk에서 동부자바 교민과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주인니한국대사관, '07년 제2차 경제 전망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30일 자카르타의 만다린 호텔에서는 주인니도네시아 대사관 주최로 금융, 봉제, 은행, 에너지, 건설 등 업종별 협의회장단 및 인니주재 기관장, 재인니 한인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제2차 경제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인니의 경제현황과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인니 국빈 방문 후 이룩된 성과, 한-인니 민관 경제사절단 인니방문과 한-인니 포럼, 인니투자홍보사절단의 방한 성과 등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한-인니 경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들을 다뤘다.

이선진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주시해 달라' 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하며 내년도 경제성장 6.8%에 맞는 인니 현정부의 예산편성, 인니 재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개혁 등을 통해 현재 인니 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며 한-인니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선진 대사는 "2009년까지 1만MW 전력이 추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전력대란' 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발전소 건설을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니 정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찌레본'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

소 건설 한-일 동반 진출한 의미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 전하고 한-일 합작을 통한 인니 동반 진출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KOTRA의 김병권 관장은 인니 경제의 주요 지표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관장은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엇비슷한 것이 인니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따라오는 경제 양극화에 대해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민 내부의 불만 해소가 경제를 일으키는 관건이라고 전했다.

대사관의 오송 참사관은 한국 정부 차원의 한국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과 한-인니 경제협력관계의 최근 동향을 종합하는 자리를 갖고 방산과 과학기술, 원자력협력 분야의 양국 공동위 개최, 양국 민관합동 T/F 한국개최 추진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재인니 한국에너지협의회(권희삼)와 건설(정태원), 봉제(김경곤), 금융(조종수), 대한항공(김창모) 등이 각 분야의 시장동향과 양국간의 경제협력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니주재사무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훈련센터(SIVAT)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인니 근로자들이 속한 한인기업 담당자들과 설명회를 갖고 2007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박8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인기업 인니 근로자, 한국 선진기술 배우러 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김용달)에서는 해외 진출기업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2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문화 이해 및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 내 HRD 전문기관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국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산하기관이며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주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한국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BNP2TKI(인도네시아 정부 송출기관)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지기업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캐스팅의 8개 업체를 사업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업무 약정을 상호 체결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는 2007년10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7박8일 과정으로 한국산업인

력공단 국제훈련센터(SIVAT)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초청연수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는 해외연수를 통한 자기계발과 선진기술 습득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한국기업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간관리자급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번 초청연수프로그램은 기계, 전자, IT분야로 연수생의 항공료 및 체제비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교육기간 중 현장견학과 산업시찰도 겸하게 된다.

한편 현지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전문가 파견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에 PT. LEO KORINSIA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소장 양성모) 전화 527 - 2612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 소프트볼 선수권 대회 자카르타서 열려

지난 8월 19일부터 4일간 자카르타 스나안 경기장 내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아시아 여자 소프트볼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17명의 선수단과 임원진들이 참가한 한국 대표팀은 태국, 일본, 홍콩, 필리핀과 예선경기를 가졌다. 아직은 비인기종목인 소프트볼은 1996년 전국체전과 2007년 소년체전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소프트볼 양대 강국과는 그 수준차이가 많이 나지만 현재 전국 시도 중,고,대학교에 약 20~30여개의 소프트볼 팀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국제대회 참여와 꾸준한 성적향상으로 소프트볼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한 소프트볼 관계자는 경기 시 관람객의 차이에 따라 경기의 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특히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시 교민들이 많이 나와 응원을 할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카르타 대회에서 매일 참석해 준 여러 교민들과 한인회, 대사관 관계자들, 특히 땅그랑 야구동호회의 많은 관심덕분에 예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교민 응원객들이 자리를 해 줄 때 마치 한국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하고 많은 소프트볼 경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인회, 신임 이사 및 운영위원 선임



강 영한 신임 이사



구 자성 신임 운영위원



전 민식 신임 운영위원

● 한인회 신임 이사 및 운영위원(가나다순)

성 명	회 사 명
강영한 신임이사	PT. K.H. Indonesia
구자성 운영위원	일요신문
전민식 운영위원	PT. Powertech Indonesia

9월 1일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강영한(PT. KH Indonesia 대표이사)씨를 한인회 이사로 전민식(PT. Powertech Indonesia 대표이사), 구자성(일요신문 사장)씨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사와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됐다.



이선진 대사 특별기고

印尼 진출, 日과 협력 모색을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를 찾는 한국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90여명의 한국 경제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증가추세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 그들 관심의 주종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분야지만 봉제·완구 등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의 진출 또한 괄목할 만하다. 지난 1년 사이 180여개의 봉제업 진출업 공장이 220~230개로 늘어났으며 기존 업체의 증축까지 합하면 40~5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아베 일본총리가 8월19일 240여명의 대규모 경제인단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2003년부터 협상을 진행해오던 경제적 동반자관계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4년 만에 타결, 아베 총리의 설명대로 ‘양국 간 훨씬 폭 넓은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베 총리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사업의 하나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지역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 개발 진출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왔던 사업이다. 5억4,000만달러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발전소(600MW)는 한국의 중부발전과 삼탄·일본의 마루베니,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의 협력 사업이다.

본인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일 기업의 공동 참여 사업이며 우리 수출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JBIC)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사업 금융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등 기간 산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금융 지원을 겨우 얻어내도 높은 금융비용으로 입찰을 포기하곤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급은 7월 아시안컵 대회 당시 한국과 사우디 축구경기가 정전으로 인해 25분간 중단된 것처럼 결코 양호하지 못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1만MW 전력이 추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1만MW 발전소 건설을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8개의 정부주도 발전소 건설 사업의 입찰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회사들은 저렴한 건설단가, 중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인도네시아 내 화교들과의 협력이라는 점 등을 심분 활용해 이 중 7개 사업의 체결을 이끌어 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일본·유럽이 대인도네시아 투자를 경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 진출을 반길 수밖에 없지만 내심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이 지역 정치와 안보의 불안감, 자원 개발과 기간 산업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과점과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기술력과 신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일본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를 유·무상 정부원조의 최대 공여국(2005년 약 10억불 제공)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동남아 진출의 고두보로 삼아 일본기업들의 대규모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98년 경제 위기를 전후해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빠져나갔으며 최근에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진출에 따라 그 존재감이 한층 약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추가해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종래 중국경계 입장에서 벗어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5월에 대규모 한국 경제사절단의 방문에 이어 이번 아베 총리가 240여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EPA를 체결한 사실에 크게 고무되고 있는 것이 이 곳 현지의 분위기다. 일본으로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부국이자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한·일이 합작할 경우 위험분산(Risk-sharing)과 함께 일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높은 신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찌르본’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산 발전기(generator)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 받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원자력 포함), 조립·광산 개발,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 등에 있어 일본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갯잎처럼 친근한 인도네시아 대표 잎사귀,

다운 꼬망이



들에서 피는 들꽃처럼 참으로 친숙한 느낌이 드는 다운 꼬망이 (Daun Kemangi) 입니다. 우리네 들깨처럼 향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 번은 멈추게 하는 잎이기도 합니다. 그 향이나 모양이 흡사 박하와 비슷해서 우리에게는 그리 멀리 느껴지는 식물은 아니나, 박하와는 다른 그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처음 만날 때 느끼게 되는 특유의 야릇한 향 중에 하나로, 외국인에게는 코로 느끼는 인도네시아의 일부라고 할까요?

꼬망이 학명은 *Ocimum canum*이며, 식물학상 분류로 보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꿀풀과(Labiatae)의 식물입니다. *ocimum*라는 이

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식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향(香)입니다. 그 특유의 향(香)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박하(薄荷)를 비롯하여 소엽(蘇葉), 익모초(益母草), 형개(荊芥), 황금(黃芩), 들깨(荳子)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방향성 식물입니다. 지중해연안에서 가장 많이 자란다고 알려져 있으며 잎은 윤생(輪生)이나 대생(對生)을 하며 줄기의 횡단면이 사각형이며 약효로는 정유성분(精油性分)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물군입니다.

다운 꼬망이는 꼬망이의 잎을 먹게 되는데, 줄기는 사각으로 짙은 녹색이며 작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고 잎은 난원모양이나 긴타원모양, 피침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 끝이 뾰족합니다. 잎의 윗면은 옅은 녹색이며 추운 땅에서 자란 것일수록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꼬망이 씨는 검고 조금 노란빛이 납니다. 꼬망이 씨를 심을 때에는 흙을 얇게 덮어주어야 싹을 잘 틈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현지식당(특히 순다, 빠당 음식점)에서 야채 한 접시를 시키면 의례히 얼굴을 내밀고, 그 향으로 유혹하고 앉아서 한 번은 먹어보게끔 하는 흔한 야채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이 야채를 즐겨 먹으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다운 꼬망이를 살 때 “어디에 좋은가요?”라고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까지 거들면서 그 효능을 알려주는 아주 친구 같은 야채입니다.

이 곳 사람들은 입 냄새나 몸 냄새를 제거하는데 다운 꼬망이가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수족구와 같이 입 안에 난 병을 치료할 때에도 다운 꼬망이를 많이 먹게 하여 치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유방에 통

증이 있을 때에도 다운 꼬마이를 쓰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신생아나 영유아가 열이 나고 배가 부풀어 오를 때 다운 꼬마이와 빨간 양파, 코코넛 기름을 섞어서 배, 가슴, 등에 발라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다운 꼬마이를 살펴보면 성미(性味)는 한(寒), 무독(無毒)하고辛고감(辛苦甘)하며, 歸經(귀경)은 수태음 폐경(手太陰肺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됩니다. 신미(辛味)로 인하여 개(開)하며, 고미(苦味)로 인하여 설(泄)하고, 감미(甘味)로 인하여 중화(中和)하며, 한랭(寒涼)한 기운으로 청열(淸熱)하는 기능이 돋보이는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미(辛味)와 방향성(芳香性)으로 인하여 상부로 침입한 풍열(風熱)을 소산(疏散)시킬 수 있으니,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인후(咽喉)를 이롭게 하며, 폐(肺)의 기운을 조절하여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소음심경과 족궤음간경으로 들어가서 혈의 순환을 돕고 정미로운 혈액은 저장하니 부인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좋습니다. 또한 족태양방광경으로 들어가서 이수퇴종(利水退腫)하는 성질이 있으니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종(浮腫)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 꼬마이에는 휘발성의 정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꼬마이유의 작용으로 소량을 내복하게 되면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하게 하여 한선(汗腺)의 분비를 촉진하게 할 수 있으니 신체의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증가하여 발한해열(發汗解熱)하게 됩니다. 또한 복부 내의 이상적인 발효를 저지하여 흉복부(胸腹部) 창만을 치료하게 되며, 외용으로는

피부점막과 혈관을 수축하게 하여서 국부의 청열감(淸熱感)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신경말초를 잠시 마비시켜서 소염(消炎), 지통(止痛), 지양(止痒)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따르면 다운 꼬마이 100g안에 5,000SI의 비타민A가 들어있어서 각막건조증, 야맹증에 도움을 주어 눈의 기능을 돕고, 또한 간의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네랄도 풍부하여 칼슘(Ca)이 45mg, 인(P)이 75mg이 들어 있어서 임신부나 어린이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야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Purdue University의 <Center for New Crops and Plant Products>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다운 꼬마이는 두통, 설사, 변비, 회충으로 인한 복통, 신장병에 좋으며, John Henry M. 의 <A Dictionary of Practical Material Medical>이란 책에 의하면 다운 꼬마이는 설사, 유방통증, 신장 결석, 질의 문제가 있을 때, 오줌에 알부민이 섞여 나오는 뇨단백증을 치료할 때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꼬마이차’라고 하여 기침, 감기, 열병이 자주 오는 환절기 때, 꼬마이 말린 잎을 끓여서 온 가족이 함께 마시는 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운 꼬마이는 작은 야채가거나 대형슈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야채입니다. 보통 밝은 연두색을 띤 것이 싱싱하고 맛도 좋습니다. 구입해서 상추와 깻잎처럼 소스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말려두었다가 차로 드셔도 그 향을 느끼기에 좋은 차가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디며 느끼게 되는 특유한 향내, 그 속에 녹아 있는 다운 꼬마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무엇보다 친숙해 질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냄새입니다.

- 술환의원 원장 강효정(021-7278-7410/kang4333@chol.com)



김희년

AITI Group 대표이사

“흔히들 사업을 운칠기삼(운 70%, 노력30%)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겐 70%의 운과 나머지 30%는 지인들의 도움이었던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자카르타 수디르만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AITI Group의 김희년 대표이사는 자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운과 지인들의 도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뜻의 ‘진인사대천명’을 좌우명으로, IMF라는 금융위기를 용기와 기획,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모든 일을 노력 하나로 일궈낸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과 임에 분명하다.



한인뉴스는 최근 대우증권의 지분 투자를 받아 대우증권의 발전된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는 등 한 걸음씩 인도네시아 최고의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등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게이트웨이로 되어 양국의 투자와 금융의 중심 가교 역할의 중심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지니고 있는 김희년 사장을 만나 그 간의 소식들을 물었다.

현재 경영하고 있는 AiTi Group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회사의 업무 개요도 함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희 AiTi Group은 업무 성격에 따라 투자, 증금, 증권업을 영위하는 3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2000년 설립한 PT. AITI INVESTMENT, 증금은 2001년 한국 하나은행으로부터 인수한 PT. HANA RISJARD FINANCE, 그리고 증권은 2002년도 설립한 PT. ETRADING SECURITIES가 그것입니다.

PT.AITI INVESTMENT는 2000년 설립 당시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었어 당연히 IT업종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인니 최대 인터넷 포털인 Detik.com을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및 SI업체를 투자업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업 영역을 부실자산 인수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로 확장하여 몇 개의 부실한 인도네시아 기업을 인수, 구조조정을 하여 성공적으로 매각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3년 한국의SK와 공동으로 인수한 PT. Kohap Indonesia도 같은 유형의 투자 건이며 지금까지 경영은 SK가 맡고 저희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석탄을 비롯한 천연자원 영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PT. HANA RISJARD FINANCE는 리스, 소비자금융, 팩토링, 크레딧카

드업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사로 현재 중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업무로 차별화를 시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좋은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여 업무영역을 점차적으로 다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PT. ETRADING SECURITIES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정식 회원



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주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도입하여 인니최초로 온라인 증권매매 업무를 실현, 현재 인도네시아 증권 투자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우증권과 일본 Jaic(일본 최대 벤처 캐피탈)이 주주로 참여 더욱 안정적인 주주구성을 구축했으며 향후 IB(Investment Baking)와 PB(Private Banking)로 업무영역을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요?

A 1995년 동서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태국을 시발점으로한 IMF금융위기로 한국의 동서증권 본사가 파산되어 부득히Asia Kapitalindo Securi-

ties라는 현지 증권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2000년 독립하여 차근히 하나씩 새로운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트레이딩 증권 신 재원 대표도 같은 동서증권 국제금융부 출신입니다.

한인기업들은 제조업체가 대부분인데 인도네시아 최초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딩을 설립하는 등 금융, IT관련에 집중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제가 대학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줄곧 종사 해 온일이 은행일

과 증권업무였습니다. 다시말해 금융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금융업뿐이었습니다. 금융업이 방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계 금융기관은 대부분 한국의 금융기관이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개인이 혼자서 금융업을 시작하기란 사실 쉬운일은 아



니었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금융 위기가 저에게는 적은 자금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제공했습니다. 초기에 자금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주위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업을 운철기삼(운

70%, 노력30%)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겐 70%의 운과 나머지 30%는 지인들의 도움이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엔 IT산업의 붐으로 IT관련 회사에 투자가 많았으나 현재는 어떤 특정분야에 편중되지않고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 이상의 현지인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마케팅을 위한 직원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회사를 돈 장사보다 사람 장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제2금융권을 영위하는 회사에선 직원 개 개인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긴 인도네시아이고 인도네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기에 현지 직원들의 역할은 주도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시장은 저희보다 직원들이 훨씬 더 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과 매주 마케팅 미팅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그들을 통해 가장 현지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들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국 관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있는 직원을 뽑아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더 열정을 가질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직원들이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창의적으로 될 때 영업 실적은 더욱 더 양호하게 나타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지 책임자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고 명확한 성과보상 시스템으로 실적과 능력위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으로서 인니 금융시장이 한국과 인니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A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주변국(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 발전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면 대략 15년에서 20년은 뒤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인구, 자원, 성장잠재력으로 볼 때 20년 뒤에는 상당한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히 금융시장의 발전이 뒷받침 될 것이기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여타 개발도상국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당분간 우량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 현상

이 지속되는 한편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과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금융권의 유동성공급이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향후 금융기관들의 신상품 개발 판매에 따른 수익증대도 예상됩니다. 금융인프라 미비와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향후 상당한 발전을 지속할리라 예상됩니다.

향후 주목해 볼만한 우량 금융주가 있을까요?

A 저희 회사에선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제가, 중금은 임동진 이사가 그리고 증권은 신재원사장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전략적인 미팅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재량에 따라 각자가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권업무를 하지 않아 사실 개별종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우량 종목추천은 저희 증권사 사장인 신재원 사장이 더욱 잘 알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난 7월 대우증권의 이트레이딩 지분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이번 지분 참여를 계기로 이

트레이딩 증권은 대우증권의 발전된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아 인도네시아 최고의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우증권이 경험한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기업금융 및 IB시장으로의 사업확대를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인터뷰 하고 있는 강영한 편집위원

향후 그룹의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A 첫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증권사를 일궈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을 인수 합병하여 종합 금융 그룹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나 벽돌을 정성껏 쌓아 훌륭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최대한 활용,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게이트웨이로 되어 모든 투자와 금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Private Banking 업무를 시작하여 교민들에게도 인도네시아내의 최상의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교민들의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A ‘진인사대천명’을 좌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엔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은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곳엔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A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교민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경자
발리섬 (2)

천경자
1924년에 태어나 1944년 동경여자미술 전문학교를 졸업, 파리 아카데미 고에 쓰에서 수학. 천경자의 그림은 그 자신의 생활감정을 포함하여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인간의 내면세계, 문학적인 사유의 세계 등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1974년 라일락과 노란 코스모스만 꽤 오랜 세월을 바라오면서 고수(孤愁)에 젖어든 상황에서 출연 스케치북을 들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아프리카로 입성하기 전 아시아의 이국을 느끼고 싶어서 일까? 아름다운 방랑길의 첫 발은 이곳 인도네시아의 발리였다.

발리를 표현하는 그의 작품의 중심 이미지로 떠오르는 꽃과 여인은 일상적인 생활감정 뿐만 아니라 그의 속내를 은유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체험적인 인식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발리 사라사를 짠 여인들 / 1974년 작

여행 안내자 유디가 돈을 내면 나를 오토바이에 태워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 누이동생을 그리게 해 주라고 한다. 덴파사르(Denpasar)에서 30리 거리의 마을에 있다는 유디의 집에 따라가기 위해 나는 그가 모는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올라탔다. 우거진 야자수 숲 사이로, 한 쪽에선 모시고 한쪽에서는 벼를 거둬들이는 열대 지방의 풍물(風物)이 아름답게 스쳐간다. 상쾌한 바람은 내 머리보다 더 긴 유디의 곱슬머리를 날려 그의 머리카락이 내 코끝을 건드릴 때마다 야자 향유(香油)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든다. 간혹 제례(祭禮)의 긴 행렬이 팽과리를 치면서 지나가고 발리 사라사를 짜는 여인들의 슬픈 표정이 흘러간다. 집 앞에 느릿하게 앉아 있는 사나이들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관광객에 익숙해진 무관심한 시선이였다.

유디가 사는 마을은 내가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의 동촌(東村)이라는 마을 모습과 비슷했다. 마당에 선 커다란 오렌지나무에 열매가 수세미처럼 주렁주렁 늘어지고 개가 한마리 마당을 쓸고 다니다 비스듬히 나자빠지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그의 할머니가 되는지 허리가 굽은 노파가 뒷도리를 벗은 채로 서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악을 쓰는 듯한 소리였다. 유디의 누이동생은 자바의 뚝 여인들처럼 눈살이 매워 ‘저놈의 계집애 눈매 좀 보소.’ 하고



발리의 처녀 / 1974년 작

싶었지만 한편 이팔처녀의 순결한 매력이 넘실거린다. 유대는 또 거리가 멀어 돈이 많이 들지만 발리 섬의 명승지인 바스르산의 분화(분화)와 바스르호(호)가 바라다보이는 고원지대(고원지대) ‘긴다마니’에 가지 않겠느냐고 권하면서 ‘호호호...’ 하고 웃는 것이었다. 그가 띄엄띄엄 말하는 일 본말은 귀동냥으로 주워 모은 것 같았다.

발리는 가까운 호주의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고 호주의 히피 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 호주 사람을 보면 몸이 커서 싱겁게 보이고 열썩한 게 원지 천국의 계단에서 만날 것 같고, 특히 머리가 흰 여인들을 볼 때 다른 위성의 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 덴파사르에서 가까운 곳에 ‘우붓’이라는 마을이 있다. 언덕 위에 발리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있는 아담한 미술관이 거기 있었는데, 소위 발리 예술의 중심지라고 한다. 많은 화가가 살고 있다는 그 마을엔 미국인, 네덜란드인도 있어 발리 처녀와 결혼하여 연못 옆에 개인미술관을 마련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결국 집과 그림 수십 점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이 심중팔구라고 했다. 또 사느르 해변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은 남편(벨리에의 화가)과 살던 집을 지키며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붉은 부우겐빌레아를 매일같이 화병에 갈아 꽂고, 여행자가 찾아오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과거에 살고 있는 우아한 미망인도 있었다.

30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 아래 있던 자바(Java)가 2차대전 뒤 4년에 걸친 독립투쟁 끝에 인도네시아로 독립한 후 별안간 자바어를 버리고 새 언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의미는 다름없지만 간혹 ‘아이고, 풋고추, 아나따, 와다시, 이시이’ 등 귀에 익은 말들이 튀어 나오는데 원지 국제성이 짙은 언어같이 느껴졌다.

누가 발리섬을 <지상 최후의 낙원>, <신의 나라>, <매혹의 나라>라고 했다지만, 내가 찾고 싶었던 발리의 흥미는 30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에 시달리면서 외래 문명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다시 그 문명을 수출한 점이다.

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오고 갔을 문명의 향수 같은 것에 젖으면서 어린 시절 유행했던 서커스의 노래 ‘홀러홀러 북은 시베리아, 남은 자바어...’의 낭만과 비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은 끝없는 여수(旅愁)에 젖었다.



자바 여인 라이 / 1974년 작

초로(初老, 55~60의 연령)에 미처 못미치는 나이.. 언제보아도 중후하고 힘이있는 연령이다. 그러나 마주치는 상대방이 누구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사는 누구에게나 맞장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돌아오는 눈빛이며 응대가 별반 신통치가 않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사도 마찬가지로 받는 것보다는 먼저하는 것이 즐겁고 의미있는 일인데 받는 쪽에서 시원치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이러한 관습이 굳어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외적으로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심지어 받을 줄도 모르는 한국인이라는 편견을 듣게될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가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로부터 고립과 소외를 자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정하게 인사해 올 때 당황하는 경험을 한다. 거꾸로 한국에 사는 외국사람들은 승강기 같은 곳에서 마주친 한국사람들이 못 본척 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노려보는 눈길에 제일 곤혹스럽다고 한다.

인사(人事)는 아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다정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그로인한 충돌을 예방해 주는 본질적인 기능을 갖고있다. 인사가 사라진 사회, 외면하거나 찌러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조의를 표하거나 감사의 인사, 축하, 위로, 칭찬하는 것도 모두 일종의 인사인데 이를 게을리 하면서 어찌 타인과의 교감을 이루어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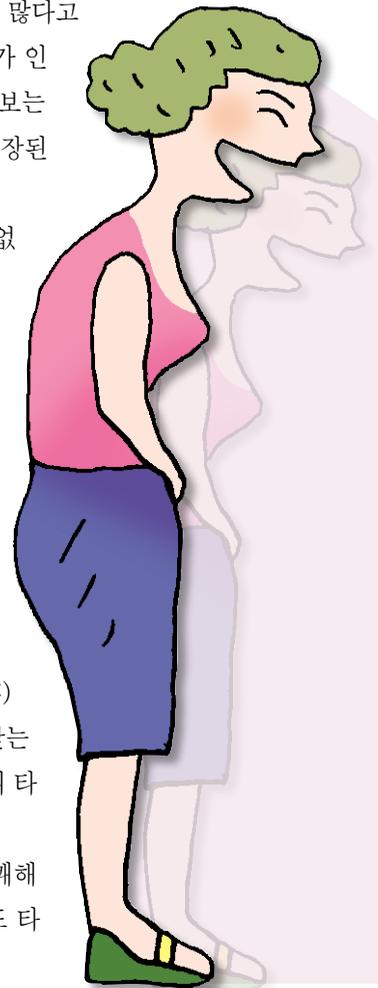
실제로 한국에서는 인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찌러보다가 폭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반복해서 몇번이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탄스럽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매일 접하는 것이 이네들의 미소이다. 아침에 만나면 서로 처음보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미소 짓는다. 모처럼 한국에 들어가면 무표정한 얼굴에 긴장된 모습, 아니면 근엄한 표정으로 바빠 걸어가는 사람들 투성이다. 표정이 달혀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지 마냥 미소지으며 실실대고 있으면 실없는 사람 취급 받거나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취급 받는다. 그러나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보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고들 하지 않는가?

인사를 잘 못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일본인이 다른 점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좀 웃기긴 하지만 걷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속된 표현으로 어기적 거리면서 걷는다는 것이다. 양반걸음.. 하긴 맞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양반의 자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조선시대의 양반사회는 실제로는 처절했다. 3대에 걸쳐 가문(家門)의 자손이 과거에 급제 하지 못하면 향반(鄕班)으로 몰락하여 대접을 못받게 되니 죽어라고 공부시켜 과거급제 즉 오늘날의 서울대학에 꼭 보내야 했다. 오리지날 양반의 팔자(八字) 걸음은 팔,다리, 머리가 전부 따로 따로 논다. 이 자세는 인사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받는 자세에 더 가깝다. 한마디로 인사를 할 준비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매번 인사의 타이밍(timing)을 놓칠 수 밖에 없다.

꼬마 아가씨 K양. 눈이 마주치자 명량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진다. 인사를 잘 하지 못할거면 대신 잘 받기라도 하자... 마음만 먹으면 설마 그 정도 타이밍도 맞추지 못할까?



인사 잘하는 아이

비 행기내에서 아이가 좀 수선스런게 목소리가 주위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크다. 한테 어머니가 아이를 복도로 내려놓고는 뺨을 철썩하고 때리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승객들은 그 일본인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배려에 속으로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현지 중국계 부인. 고만고만한 아이를 둘씩이나 좌석에 태웠는데 둘이서 마냥 까불어 대도 말릴 생각을 안한다. 아이들의 수선함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지만 정작 어머니가 제재를 하지 않으니 누구도 선불리 말을 걸기가 어렵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없는 듯하다.

학부모, 특히 일부 못난 어머니들이 심각한 오만(傲滿)과 편견(偏見)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잘 받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자기아이의 학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도 받지않고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현명한 부모들은 친구들에게 더 잘 대해 준다. 자기 아이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아이들끼리 따로 만나서도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서로 나눠 갖게끔 하기 위함이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항상 마음이 뿌듯하다. 그건 바로 어려운 세상살이를 현명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몇년전의 인터넷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폭력사건 발생건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당당히 2위에 올랐다. 같은 통계를 보면 일본은 우리의 30분의 1수준이고, 인도네시아는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폭력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청소년 뉴스를 보려면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하고나서 보는 것이 좋다. 요즘의 청소년 범 죄는 유흥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미로 때를지어 흥폭하게 저질러 진다고 한다.

인사하기, 질서 지키기... 이걸 사회인으로서의 기초규범이기 때문에 서양이나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렸을때 부터 철저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체질화가 될 때까지 반복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우리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보내 영어, 수학을 반복교육 시키고 예능을 추가교육 시킨다.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어른들에게 인사할 여유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더 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미소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단순한 수준의 인사를 말하는 것이다.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이런 마음이 인사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위해 규칙과 질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그 시작인 것이다.

국가적인 나쁜버릇을 고치는데 길게는 한세기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아무거나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반으로 잡아서 최소 50년... 1세대를 25년으로 보면 2세대 즉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에 와서 결실을 본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부모들은 나쁜 유산, 즉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과 수치심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농사짓는 소(牛)까지 팔아가며 자식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해방(1945) 62년. 요즘은 아직도 그 시대의 열등의식이나 자학심을 갖고있는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글 : 송현식 / 동부자바 한인회원



해발 700미터에 놓인, 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가룻(Garut) - 1 편

늘 떠났지만, 마주치는 건 ‘나’였다 -

가룻은 반등처럼 유명한 관광지지는 아니다. 그래서 높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외롭고 적막해 보이기도 하는 곳이다. 잠시나마 이곳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나’를 묻어두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 주고 싶다.

가룻은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곳이며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적 매력이 있는 곳이다. 해발 700-800m의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계단식 논밭이 많이 나타나며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주로 한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길게 이어진 멋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계단식 논을 구경할 수 있다. 반등이나 뽕짜처럼 고지대를 이용하여 선선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재배하고 있다. 고지대에는 침엽수가 자라는

글 : 사 공 경
JKS 사회과 교사



것도 볼 수 있으며, 신선한 기후와 부근에 온천이 있어 좋은 휴양지가 될 법한 곳이다. 냉장고와 에어컨이 필요 없어서 비치되어 있지 않는 호텔이 대부분이다.

가룻은 인도네시아의 Jawa Barat주에 있는 도시로 인도양 쪽에 있다. 3,106Km²크기로 반둥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다. 북쪽 지역은 개발 예정 지역이며 서쪽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인구는 약 8만 1,234명이고 반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이 주업이다.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남쪽으로 각각 170km, 5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철도로도 연결된다. 자카르타에서 버스로 가면 5시간 정도 소요된다. 레프팅을 즐기기 좋은 계곡도 있으며, 좋은 온천과 화산이 있어서 반둥과 비할 만큼 휴양지로서의 면모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풍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다.

가룻의 특산품 도돌(dodol garut)과 곡예 재주 라이스(Lais)

도돌은 찹쌀가루에 야자 설탕과 여러 종류의 과일을 으깨어 굳힌 맛이 단 과자이다. 캐러멜 같기도 하고 한국의 떡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피크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돌이 가장 유명하고 맛있다. 가룻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가지고 간다는 과자이다. 포장되어 팔고 있고 오랫동안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Lais라 부르는 곡예 재주가 있는데 6미터 길이의 밧줄을 두 개의 대나무 사이에 연결해 놓고 12~13미터 높이에서 기교를 펼친다. Lais는 코코넛 나무를 능숙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그의 이름은 Laisan으로 수카레닝 지역의 냥까 캄땡에서 유래된 것이다. 곡예자는 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며, 앞에서는 음악과 북 장단에 맞춰 무용수가 춤을 추고, 뒤에서는 어린이들이 춤을 추면서 따라간다. 그리고 트럼펫 음악을 곁들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곡예라기보다 차라리 예술이다. 이렇게 라이스는 관람객들에게 내면의 열정과 영혼을 만나는 시간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서커스단을 떠올리며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거대한 생명체 - 삐뻤다얀화산(Gunung Papandayan)

삐뻤다얀화산은 높이 2,622m로 복합구조의 성층화산(成層火山)이다. 분출공(噴出孔)의 이동으로 형성된 4개의 화구(火口)를 가지고 있다. 반둥분지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이 화산은 18세기 말 이래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722년과 1923~1925년에 분화한 기록이 있으며 모두가 증기폭발이었다. 특히 1722년의 폭발 때에는 2,957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2002년에 다시 폭발하여 두 개의 큰 분화구를 만들었다. 등정은 가룻 방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이다. 이곳에 오면 지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화산에서 자라는 특유의 키 작



은 식물들과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그 하늘 위를 수놓은 하얀 뭉게구름, 안개처럼 피어 오르는 화산의 연기 속을 거닐다 보면 분화구 저편에는 실존하지 않는 이상향이 있을 것만 같다.

인간의 체취가 느껴지는 가내 수공업 - 실크 제작

PT. Alam Aman Sahuri는 1961년에 H. Aman Sahuri씨가 설립한 실크 회사다. 이 회사의 제품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게 유명하다. 이 공장에서는 비단 색이 잘 지워지지 않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염색 기술을 이용한다. 이제 PT. Alam Aman Sahuri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공업품으로 유명한 가장 큰 비단 공장이 되었다.

만드는 방법은 누에에서 실을 뽑아 비단 옷을 만드는데 이 명주실을 우뭇가사리와 밀가루를 넣고 쑨 가사리 풀을 먹인다. 이렇게 하면 날 자체에 돌아난 보풀보풀한 털이 풀 기운으로 울에 바짝 붙게 되어 실이 질겨지며 바디도 쉽게 오르내려진다. 풀 먹인 실은 도투마리(날을 감아 베틀 앞다리 너머의 채머리 위에 얹는 틀)에 감아 베틀에 걸어 넣어 한 손으로는 바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북을 들어 발을 든다. 발을 당겼다 폈다 하면서 베를 짜나간다. 짜여진 실크(명주)는 20m정도의 단위로 베틀에서 떼어내어 필로 묶는데 명주의 너비는 35~40m가 된다. 가내 수공업이므로 산업화 시대에 길들여진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공장 분위기에 친근감이 간다.

실크 제작 과정과 종류

물레방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곳인데 대부분 20대의 여직원들이 앉아서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있다. 뽑아낸 실로 베틀을 이용해 비단을 짜고 있다. 기술자들은 능숙하게 발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비단의 무늬를 만든다. 사람 발이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비단의 무늬가 달라졌다. 그 다음 단계는 염색을 한다. 마지막에는 완성된 제품을 삶아 색깔과 실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이 있다.



실크의 종류로는

- ①드레스나 셔츠 그리고 하지 의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값비싼 무늬가 짜여진 하얀 비단과 무늬가 없는 비단,
- ②남자와 여자가 셔츠나 드레스 등을 입을 때 이용되는 한 가지 색깔의 비단,
- ③바닥 비단은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비단에 무늬를 새길 때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직공이 특별히 디자인하는 손으로 만들어진다.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생산품들이 바틱으로 완성되었을 때에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 ④이꽃 모양으로 디자인 된 비단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무늬와 색깔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고 무늬를 만들 때 비단 섬유를 대나무로 된 틀에 팽팽하게 매달고 염색과 무늬를 새긴다. 다음 실을 짜는 과정이 끝나면 이꽃 제품이 완성된 것이다. 대부분 야회복으로 만들어지며 또한 사롱이나 넥타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 ⑤비단에 손으로 직접 무늬를 박는 종류가 있다.

실 하나 하나를 다 손으로 감고 발로 베틀을 밟으면서 천이 조금씩 완성되는 것을 보고 이 비단제조가 수공업에서는 많은 인내심과 애정과 철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을 지켜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비단에서는 인간의 체취가 느껴져 한층 감동적이다.



일과 사람에 치이고 비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가룻에 가서 깊숙히 묻혀 있던 내면의 자아와 조우(遭遇)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기를 권하고 싶다.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느끼며 그들의 영혼의 노래를 들으라고 말하고 싶다.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화산의 아름다움, 몸과 마음까지 새롭게 느껴지는 청신한 자연 속에서..... 멀리 사라져 가는 오리떼를 따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언젠가는 길에서 지칠 나그네의 마지막 휴식처는 어디일까’



137회 문화탐방

9월 8일 / Roemah Djawa-Sit Down Luncheon

138회 문화탐방

출발 모임 장소: 한인회

일시: 10월 3일 수요일 6시30분 - 21시30분

장소: Bandung Tangkuban Parahu (Kawah Ratu, Kawah Upas)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사공경 0816-190-9976



글 : 김영민 편집위원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나에겐 제일 곤혹스럽다. 길거리에 차량이 한산한 일요일이나 늦은 밤 같으면 20~30분이면 당을 거리를 매일 아침 2시간 이상을 길거리에서 소비한다. 몇 번은 맘 먹고 1시간 정도 일찍 집을 나왔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평상시와 별 반 다름이 없다.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은 이제 최악을 넘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아침 출근 시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다. 책을 읽어 볼까?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 눈꺼풀도 함께 내려간다. 예전엔 차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을라 치면 구토가 일곤 했었다. 그럼 라디오를 들어볼까? 인도네시아 청취력을 증가시키고 시사적인 이야기도 접해볼 겸 라디오를 켜다. 라디오를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정말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나 가십성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럼 카메라로 사진이나 찍자. 직업 때문에 매일 카메라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 길을 지나다 재미있는 거리라도 있다 싶으면 바로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누르는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면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길에 찍어댄 사진들로 내 컴퓨터는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난 혼자 컴퓨터 불만을 하곤 한다. 찌뿌득한 날, 비라도 올 것 같으면 차도는 이내 이수라장이 되고 아~ 또 지각이구나....

길을 가다 보면 유난히 많이 띄는 간판이 하나 있다. 교통체증의 답답함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빨간 잇몸과 반듯하고 하얀 치아를 드러내놓고 환하게 웃는 그 간판은 출근길 내내 날 한동안 킁킁 웃게 만들었다. 'Ahli gigi'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원래 난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에 강하다 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내 눈에 안 박히고 못 빼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한번은 출근길에 길가로 보이는 Ahli gigi가 쓰여진 간판을 세어 본적이 있다. 워낙 많다 보니 호기심이 발동했고 집중해서 세어본 결과 총 15km 정도의 출근 거리에서 7개의 Ahli gigi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2km 마다 한번씩 웃겨줬던 것이다.

Ahli는 전문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Gigi는 이빨 즉 치아를 말한다. 그러니 Ahli gigi는 꾀 치아 전문가, 이빨 전문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약간 의역한다면 치아에 전문인 사람 또는 숙련된 사람으로 보면 된다. 치아 전문가? 그럼 치과의사인가? 대중 한국사람들에게 Ahli gigi가 뭐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치과의사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한국에서 치과의사라고 하면 세련되고 돈 잘 버는 아주 잘 나가는 전문직업인, 신랑감 선호도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멋쟁이 그룹

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치과의사에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간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리 전망 받지 못하는 직업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치과의사는 Dokter gigi라고 불린다. 또는 영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Dent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 Ahli gigi는 치과의사가 아닌 게 분명하다. Ahli gigi는 Ahli pasang gigi 또는 Ahli pasang gigi palsu라는 글로 대체되곤 한다. 즉 Ahli gigi는 인공치아를 심거나 틀니를 만들어 씌우는 전문가라는 뜻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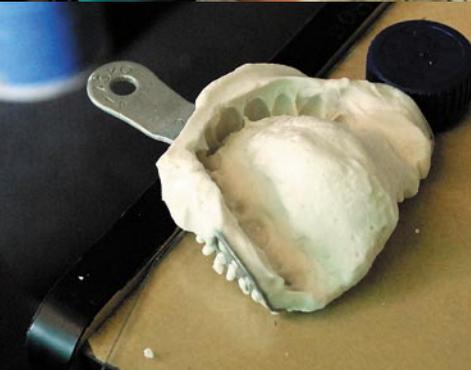
하루는 호기심의 발동으로 Ahli gigi를 찾아 들어갔다. 두 세평 남짓한 허름한 방, 오래된 낡은 탁자와 마주보고 있는 의자 2개, 그리고 다리 펴고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약간 긴 의자. 처음 내 눈을 사로잡은 것들은 도대체 치아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의 눈을 잡아 끈 것은 벽에 걸려있는 치아관련 패널(Panel)들이었다. 이때 한 손님이 들어왔고 Ahli gigi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곳의 Ahli gigi는 알리(23세)씨였다. 그들이 이야기의 요지는 손님이 얼마 전 틀니를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치아가 자꾸 흔들리고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씹을 때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이다. 손님은 흔들리는 치아를 빼내고 새로운 틀니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때 알리씨는 원래 치아가 있어야 틀니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치아를 빼지 않고 새 틀니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알리씨는 이곳에서 Ahli gigi로 일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하는 일은 환자들의 상담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틀니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는 치과대학과정을 밟지 않고 그의 형으로부터 이 일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Ahli gigi가 되기 위해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여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요구에 따라 알리씨는 환자의 입을 벌리고 틀니의 상태를 체크한다. 그리고는 곧장 공작할 때 쓸만한(도저히 사람 입에 들어갈 만한 것 같지는 않았다) 모터로 돌아가는 절단기로 원래의 치아에 고정시킨 철 실을 잘라낸다. 드르륵 드르륵... 옆에서 보고 있으니 치료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보다는 엽기적인 표현이 더 맞는 듯 하다. 틀니를 빼내고 이번엔 치아의 모양을 본뜨기 위한 작업 즉 입안에 끼워 넣기 위한 틀에 열심히 반죽한 석고를 채워 넣고 바로 환자의 치아를 덮는다. 1분 정도 지난 후 틀을 딱딱해진 석고 틀을 뺀다. 이걸로 오늘 작업은 끝. 알리씨는 석고 틀과 인공 치아 등을 이용해 틀니를 만들고 난 후 3-4일 후엔 환자의 치아에 부착하게 된다.

왜 인도네시아에는 Ahli gigi가 많을까? 알리씨의 형인 아нім(Anim-29세)는 인도네시아 물에 많은 양의 금속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주석(Timah)과 유황(Belerang)이 치아의 부식을 촉진하는 아주 무서운 놈(?)들 이라고 한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인도네시아인들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튀긴 음식(Gorengan)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은 자연히 몸에 당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치아 등 뼈마디를 약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한다. 이런 이유를 차지하더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아름다움이 그 이유이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치약광고 모델처럼 흰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싶어 한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Ahli gigi와 Dokter gigi는 공존 협력 관계이다. 이가 아파 치과를 갈 때 치아를 빼고 치료하는 것은 Dokter gigi의 몫이지만 뺀 치아에 인공 치아를 심는 것은 Ahli gigi의 몫이다. 보통 Dokter gigi는 자체적으로 틀니나 인공치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Ahli gigi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다면 틀니를 하는 비용은 비슷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비용차이는 천지 차이이다. Ahli gigi에서 수십만 루피아하는 가격이 Dokter 기기에서는 수백만 루피아가 들어간다. 퀄리티는 다르지 않다.





박화진영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그 장벽 넘기

예로부터 우리민족을 칭하여 중국인들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였다. “음주가무(飲酒歌舞)”,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삶의 방식의 하나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풍속은 좋은 의미로는 풍류를 즐기며 삶을 여유롭게 산다는 의미지만 단어가 지닌 행위상황을 따져보면 음주와 가무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즉 음주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무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자성어가 술만 즐긴다는 뜻이 아니고 보면 적당한 취기가 있어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는 것이다.

요즈음이야 노래방이라는 폐쇄공간이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단위든 친구사이든 계모임이든 생얼(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을 지칭하나 여기서는 알콜이 얼굴색을 붉게 물들게 하지 않은 상황) 상태로 노래들을 곧잘 한다. 이런 행태는 자연스럽게 가족단위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면서 가정용 노래방 기기가 성행 하였고 종전 양반집 운운하며 가정의 대소사에도 남자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아녀자들은 부엌에서 아이들은 마당어귀에서 뽀뽀이 모여 있던 풍속에서 벗어나 거실 한가운데 노래방기기를 설치해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가벼운 차와 다과상 앞에 두고 흥겹게 한 곡 조 뽐아대니 세월이 많이 변했고 진정한 가정의 화목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어 가족 문화도 한 층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역시 신명나게 한 곡 조 뽐으려면 술이라는 양념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으면 어찌 자장면 먹으면서 단무지나 양파를 먹지 않은 것 같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남자들의 유희행태가 아닌가 싶다. 치열한 생존 경쟁 현장에서 때로는 상사 및 동료와 마찰로, 계약 성사 건으로, 접대를 위해.. 등등 건수(?)를 만들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퇴근 후 술잔을 기울이고 적당히 취기가 오르면 한민족 특유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음주에 이은 가무가 그리워지면서 2차를 가게 되고 2차는 꼭 노래방이나 룸싸롱, 가라오게 등 반주기가 있는 술집을 찾게 된다.

전 국민의 가수화를 표방하며 90년 초부터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의 노래방 문화는 평소 샌님같은 사람도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를 뺄치는 수준의 노래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적당히 오른 알코올 기운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노래에 곁들인 갖은 행태의 춤사위는 가히 공연장 전문 백댄서들을 방불케 한다.

옛 선조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는 똑똑한 후예들이 맞다. 서울 강남을 휘어잡고 강북의 북창동으로 이어지는 밤 유희 문화는 그 백미다. 그리고 나는 그 유희문화의 세계적 경쟁력과 우수성을 익히 짐작은 했지만 이곳 자카르타에 근무하면서 실감나게 알게 되었다. 회교국인 인도네시아 발령을 받고는 음주가 금지되고 엄격한 규율의 나라라고 생각하여 감히 한국의 노래방이나 룸싸롱 같은 유희문화가 있을까 했지만 막상 내가 사는 이곳 자카르타만 해도 수십 군대의 가라오게와 노래방에서 한국노래와 주류들이 있어 큰 불편 없이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것 과 이 중 상당부분이 한국민들이 운영하는



(사)한국가수협회
 가라오게
 오케

안티에이징 핵심

불혹의 나이를 의심케 만드는 탤런트 황신혜와 가수 이승환의 공통점은? 바로 “동안”이라는 점!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지도 모르나, 하지만 신은 불공평했을지언정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노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요. 동안이 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 리프팅 관리가 해답입니다.

인생의 훈장, 연륜 등의 미사여구가 따라다니는 주름살, 과연 우리들은 이런 표현으로 만족하며 얼굴을 환히 들 펴고 다닐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NO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어떻게든 내 얼굴에서 지울 수 만 있다면, 고통과 경비를 동반하더라도 기꺼이 응하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성형, 메이크업 등을 통하여 감추고, 지우고 싶어 하는 주름살.... 요즘은 남자들도 외모가 경쟁력이라 여기고 과감히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미용에 투자하고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기후 아래서 생활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

골프동 야의 생활은 차제하고 실내에만 있어도 검게 타버리는 이곳의 기후에서 나의 피부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젊음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안”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TV, 잡지 등 각종 매체에서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비법을 소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뷰티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베이비 페이스를 만드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을 선보이며 동안 열풍에 힘을 더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그야말로 “젊어 보이기”위한 테크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동안이 되고 싶다면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안”의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동안의 필수 조건에서 “작고 탄력있는 페이스 라인”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얼굴은 변화를 알리기 시작하지요. 날렵했던 턱 선이 탄력을 잃으면서 피부는 노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지요. 특별이 살이 찐 것도 아닌데 턱이나 볼 살이 처져서 피곤해 보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시작 이지요. 만약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당신의 피부는 이미 중력의 힘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의 길 한복판에 서있는 것입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리프팅 관리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부 변화, 즉 노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피부 속 구조는 침대의 스프링과 유사한 노화과정을 겪는다고 생각 하시면 되지요. 침대를 오래 쓰다 보면 스프링이 늘어나고 녹슬어 아래로 늘어지는 것과 같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과 같은 단백질 조직도 20대 부터 서서히 그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조밀했던 피부 속 단백질 조직이 헐거워지면서 피부 구조들의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탄력저하”와 “주름 증가”라는 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리프팅관리 필요하다

Beauty & healthy

주름살 상식 체크해 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

운동을 하다 보면 격렬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야외 운동시엔 자외선과 바람이나 마찰 등에 의해 피부가 건조해져서 주름을 생성시키는 경우가 있다.

안티에이징(노화방지) 제품은 일찍 사용할 수록 좋다?

젊은 나이에 안티 에이징제품을 사용하면 과잉 영양으로 오히려 유분, 수분 균형이 깨진다.

아스피린 복용하면 주름살이 퍼진다.

아스피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주름을 개선한다는 오해를 낳는다. 그러나 주름 개선과는 무관하다.

다이어트를 하면 주름살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면 주름이 생긴다. 특히 얼굴 볼 주변이 팽다. 20대 어린 나이에 팔자 주름을 형성하는 원인이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주름살이 생긴다?

뜨거운 물은 피부 탄력을 해친다. 마지막 헹굴 때 반드시 찬물로 피부에 보습과 탄력의 두 가지 효과를 주도록 하자.

많이 웃으면 주름살이 생긴다?

눈 꼬리 쪽에 표정 주름이 생길 수 있다.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도록 하고, 눈을 크게 뜬 채 안구 돌리는 운동 등으로 눈 주위의 피로를 풀어준다.

스케일링을 하면 주름살이 생긴다?

스케일링은 피부의 죽은 각질층을 벗겨내는 화학박피다. 바깥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생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져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가장 빨리 생기는 주름은 눈가 주름이다?

눈 주위 피부가 가장 얇기 때문이다. 피부가 얇을 수록 주름이 잘 생긴다.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는 눈가 주름, 이마, 입 주위, 미간, 턱, 목 순이다.

리프팅 케어의 핵심은 노화로 함유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처진 피부 조직이 리프팅 입자로 채워지면 피부 밀도가 높아지고 얼굴선이 올라가면서 주름 없이 팽팽하고 탄력 있는 페이스 라인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부 속에는 어떠한 성분이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수분”, 이유는 노화가 시작되

는 초기 단계에는 잔주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비타민 A,C,E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주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요. 비타민 A는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는 색소 침착을 막고 항 노화 기능을 하며, 비타민E는 자외선으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결합 조직을 강화시켜 주는 탁월한 재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자카르타 내에도 이러한 리프팅을 위한 전문 케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의 피부에 알맞은 리프팅 제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관리하여 준다면, 피부 조직이 촘촘해지면서 가름하고 날렵한 페이스 라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문 리프팅 제품을 제대로 고르고 꾸준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요. 노화를 역행하고 젊고 탄력적인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 또한 중요하지요. 첫째, 평소 하루에 7~8잔의 물을 섭취해 충



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자외선은 색소성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셋째,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흡연 습관은 피부에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주름 생성을 촉진해 노화를 촉진시키지요. 마지막으로, 기초 제품을 바를 때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적도의 강렬한 햇빛에서의 이곳 생활에서 우리는 피부 건강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피부도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노화를 막고 나이보다 젊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제공 : Fibi Esthetic>

낮선 나라 인도네시아에 와서 지내다 보니 모르는 곳은 많은데 알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답답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다 보니 저렴하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도 알게 되고 각 몰(Mall)에서 세일하는 시간들을 알게 되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좀 저렴하게 구입한 옷들로 경쾌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인도네시아는 각자 하기나름에 따라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나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초보가 제안하는 코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 스커트 + 티셔츠

한국에서 구입 (스커트 10,000원 / 티셔츠 5,000원)

서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구제 옷, 빈티지스러운... 그래서 자개 악세서리로 더욱 빈티지스럽게..



주름치마 + 블랙 민소매 티셔츠

(스커트 Rp 25,000 / 티셔츠 Rp 49,000)

이것도 자카르타 스나안(Senayan) 지역 아울렛에서 구입했습니다. 연두색 주름치마에 좀 긴 듯 한 민소매 티셔츠 한 장으로 스포티해 졌는데 악세서리를 과감하게 하나 해주면서 Rp 74,000 옷을 한 걸 업그레이드 했죠.



핑크 셔츠 + 탑 + 흰 반바지

(탑 Rp 10,000 / 셔츠 Rp 100,000 / 팬츠 Rp 25,000)

평범한 셔츠 안에 핑크 탑을 바쳐 입고 올해 최고의 히트 아이템인 핫팬츠로 마무리. 시원한 느낌의 자개 꽃과 진주로 만든 악세서리가 여성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땡땡이 스커트 + 흰 T + 민소매 티셔츠

(스커트 Rp 70,000 / 흰 티셔츠 Rp 25,000 / 민소매 티셔츠 Rp 15,000)



한국에서는 땡땡이가 유행이었는데... 하긴 이곳도 신발을 보면 땡땡이가 참 많아 깜짝 놀랐죠. 좀 귀여운 블랙 & 화이트라고나 할까요? 너무 무색톤이라서 골드 악세서리로 좀 화려하게~~



레드 스커트 + 캐릭터 티셔츠

(스커트 Rp 59,000 / 티셔츠 Rp 49,000)

스나안 아울렛에서 구입한 스커트와 티셔츠, 좀 강렬한 색상이지만 추리닝 분위기도 좀 나지만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어 입어보아요.



스카이 블루 탑 + 모자 티셔츠

(탑 Rp 20,000 모자티셔츠 Rp 25,000)

스망기 몰 지하를 지나다가 모자티를 구입해서 탑이랑 매칭 시켰는데 시원한 느낌 하나로 버티는 아이템입니다.

*Tip) 안 입는 모자티를 1/3쯤 잘라서 탑 위에 매칭 시켜 입어도 멋스럽습니다.

글 : 손은희 작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레나 마리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듯한 모진 사고를 거친 후 기대감에 들뜬채 신생아실에서 당신의 아이와 첫 대면했을때 만일 그 아이가 두 팔이 없고 한 다리마저 길이가 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충격에 휩싸인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혹 아이가 바뀔 것은 아닐까? 의아해해서 몇 번을 확인해도 그 아이가 당신이 낳은 바로 당신의 자식이 틀림없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어떠하겠는가? 보통의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 아니 혹독한 저주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늘은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었다 말인가!” 탄식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 수 없어 몇날 몇밤을 잠들 수 없을 것이다. 두 자녀를 둔 이글을 쓰는 나 자신도 예외적인 부모는 아니다. 정말 그런 현실을 맞게 된다면 너무나 경악스런 나머지 정신을 차릴 수 없으리라. 손가락 하나 잘못되어 나와도 놀랄 일인데 두 팔이 없고 한 다리마저 길이가 반밖에 되지 않는 모습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 결단코 없다. 아무리 물질 만능의 시대라 해도 배아파 낳은 자식과 맞바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경악할 그 엄청난 일을 현실에서 맞닥뜨린 부모가 있었다. 바로 레나 마리아의 부모이다. 그들도 물론 보통의 부모처럼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의 아이를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물을 세상에서 누구못지 않은 정성으로 키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물로 키웠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전세계로 매스컴을 통해 나갔고 천상의 목소리라 일컬어지는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감명을 남겨주고 있다. 오늘은 이 감동적인 주인공인 레나 마리아의 삶을 조명해 보며 그녀가 그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가스펠싱어로서 오늘날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그녀의 드라마같은 한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외형의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초대된 멋진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날

그녀는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 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키 48cm, 몸무게 2.4kg로 그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땅히 팔이 달려있어야 할 곳에는 작은 돌기가 있을 뿐이었고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왼쪽 다리는 줄어든 것처럼 오른쪽 다리의 반 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왼발조차도 발끝이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몹시 휘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에 맡길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정도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레나 마리아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나 마리아의 아버지는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권유와는 달리 집에서 키우기로 결단한다. 오랜 기간 의사들은 그녀의 장애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장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상이 오면, 모체는 보통 그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에, 이 배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임신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데 그녀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케이스다.

다행히 레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밝고 명랑한,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아기였다. 손이 없는 그녀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이 손의 사용 방법을 배워 갈 때, 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태어난지 5주가 지난 후에는 발을 사용하여 장난감으로 놀기 시작 했고 자라면서 장난감 젓꼭지 대신 엄지 발가락을 짚고 뺄 수 있게 되자 레나의 엄마는 엄지발가락에 고무줄로 우유병을 묶어주었고 그녀는 우유병에 든 오트밀을 혼자서 마실 수 있었다. 평균적인 아기들의 속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레나는 나름대로 새롭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오른 발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고, 어깨와 턱 사이에 물건을 꼭 끼워서 들어 올릴 수도 있었다. 3살 때 처음으로 왼쪽 다리용 의족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걷는 것은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레나가 태어나기 전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레나 엄마는 레나가 태어나고 10년 동안, 레나와 동생을 돌보기 위해 사회활동을 일체 접었는데 물리 치료사로 일했던 경험이 집에서 레나를 돌보는 동안 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레나의 아빠는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도시와 떨어진 전원적인 곳에서 아내와 함께 레나를 돌보며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던 농부이기도 했다. 레나의 부모는 장애를 타고난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데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레나의 부모는 그렇게 레나를 정상아와 똑같이 신앙으로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여 그녀는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운전, 성가대지휘에 이르기까지 하나 밖에 없는 오른 발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 부모

물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요, 대단한 도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나의 부모는 처음부터 그녀를 ‘장애자’로서가 아니라, 딸 레나가 우연히 장애를 안고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레나를 사랑해주었기에 그것이 레나에게는 곧 자신감이 되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관심이 있는 것은 다 하라고 격려했기에 핸디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남과 다른 점은 아무 것도 없다고 레나도 생각했다.

그녀의 엄마 아빠는 레나가 도움을 청하면 금장 뛰어와 도와주는 대신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에 레나는 잘 참는 아이가 되었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기에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일에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5살 때 십자수로 만든 암탉과 병아리 그림, 2년후 재할 훈련사에게 선물한 작은 십자수를 수놓은 식탁보는 아직도 레나가 뿌듯해 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방해만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고 몇 시간씩 그림에 집중했다. 레나는 오른손이 아닌 오른발잡이로,



펜이나 클레용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집게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종이는 왼발로 눌렀다.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수영선수가 된 레나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땀고 88년 서울 파라림픽(장애인 올림픽)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레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연습해서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수영 방법은 접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래로 접영이 주종목이 되었다. 접영에서는 몸을 파도처럼 움직여 다리와 발을 사용해 속도를 내는데 돌고래의 헤엄치는 방법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녀는 이 기술을 배영할 때도 사용했다.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스웨덴 선수권대회에서 그녀는 25미터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의 4종목에 출전했는데 당시, 장애인 스포츠 각 종목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세분화 되어 있어서 코스 순서와 시험 시간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으나 그녀는 시험 시간도 코스 순서도 실수하지 않았다. 배영과 자유영에서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땀고 평영은 시원찮았지만 접영에서는 스웨덴 신기록을 내고 우승했다. 그때 국가 대표팀 코치가 그녀를 주목하여 스웨덴 선수권 대회가 끝나기 전에 그녀는 스웨덴 장애인 국가 대표팀의 일원이 되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 다음해인 1987년에는 유럽 선수권 대회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다. 그녀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4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땀다.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레나가 수영으로 대회에 나간 것은 명예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즐거움, 훈련 캠프나 시험에서 피어나는 수영 선수끼리의 우정 등이 좋아서이다. 캠프 때마다 밤을 세우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으로서의 상황에 대해, 인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럴 때마다 자기를 사랑하시며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던 부모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음악과 인기

레나는 어렸을때부터 교회성가대에서 활동했고 고등학교에서 음악전공을 시작하여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후 본격적인 가스펠싱어로서의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1991년에 일본 굴지의 방송 TV아사히에서 ‘목표를 향해’ 축약판이 ‘뉴스 스테이션’에서 방영된 것을 계기로 1992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그녀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그녀의 수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개국 언어로 출판되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기독교인구가 적은 일본에서 그녀의 책과 콘서트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무렵때 처음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아빠가 짧은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주셔서 교회 아동성가대에서 자주 불렀다고 한다. 레나는 어려서부터, 비교적 음정이 정확했기 때문에 가끔 독창을 했는데 너무나 기빠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룹 중앙에서 주목



받는 것을 좋아했고, 이 경험은 두고두고 그녀의 음악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다큐멘터리 방송은 스웨덴을 대표하여, 이듬해 네델란드에서 열릴 예정인 ‘그리스도워렌’이라 불리는 텔레비전 페스티벌 참가작품에 뽑혔다. 페스티벌에서는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심사평은 아래와 같다.

‘이 작품은 자립해 나가는 젊은 여성 신체 장애자의 생명력과 유머로 가득찬 초상화이다. 제작자는 이 멋진 여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녀를 낮게 보거나 포장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았다. 신체 장애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주인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희망과 신앙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 방송은 보다 넓게 이 사회에 소개할 가치가 있다’

그 후 많은 나라들이 이 필름의 방영권을 얻기 원했다. 이렇게 해서 레나마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영향력은 멈출 줄 모르는 눈사람처럼 커져만 간다. 이후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가스펠 회의에 참석하여 흑인 가스펠을 배울수 있었고 여러명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2500명의 거대한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하는 멋진 체험을 하게 된다.

일본은 스웨덴과 달리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데 일본 굴지의 방송국, TV아사히가 ‘목표를 향해’ 축약판을 ‘뉴스 스테이션’에서 방영한 후 일본 시청자들은 이 방송으로 완전히 다른 신체 장애자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레코드 회사, 라이프 기획팀이 일찍부터 CD를 일본어판으로 냈고 그후 ‘MY LIFE’는 책으로도 나왔다. 일본작가가 스웨덴을 방문하여, 통역의 도움을 받아 1주일간 레나를 취재하여 쓴 글이다. 그 후 2권의 책이 더 출판되었는데 1권은 장애에 대한 부모님의 견해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1권은 아동용이다. 일본 아이들은 여름방학 숙제로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 한권씩 책을 읽는데 많은 학교가 레나의 책을 작문교재로 선택한다고 한다. 이것 외에도 영어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영어판 팜플렛도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는 줄어들 줄을 모른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녀는 1995년 비욘 클링벵과 결혼하여 지금

스웨덴의 낫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결혼 전 그저 친구처럼 만나던 비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비욘을 평생 남편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고민 끝에 마침내 자신이 비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에게 청혼한다면, 받아들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결혼문제를 고려할 때 장애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단지 신체 장애자와 결혼하는 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레나의 경우는 가스펠싱어라는 직업도 특수했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기가 조금은 두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된 비욘은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훌륭한 동역자이기에 레나는 행복하고 온을 반려자로 맞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다. 물론 결혼 후 풍파가 없지는 않았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서로 친한 친구였지만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레나에게는 혼자 짊어지고 그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안으로 숨겨버리고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도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상황을 보다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때 도와야 되나’하는 문제부터 때로는 불필요하게 돕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서로가 얼마만큼의 배려를 해야할지 모를 때도 있다고 한다. 또 비욘의 손에 그녀의 발을 올려놓는 일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럽지만, 비욘에게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무슨일이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다. 레나부부는 결코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신앙안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그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삶의 비결

그녀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애의 몸으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받을 때 그녀는 다음 3가지로 대답한다.

첫째, 사람은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자신의 장애도 다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조건으로 태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밝았고, 호기심이 강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보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용기를 내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이다. 장애에 대한 부모님의 여유로운 태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주었고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존재였다.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셨다. 물론 그녀의 신체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가 종종 있지만 부모님이 문제 삼았던 것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그녀가 놓여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그녀의 장애에 대해서만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신앙은 그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천으로서 그녀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성경의 시편 139편을 읽으며 “내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해 생각하셨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녀의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레나도 이 땅에 왜 이렇게도 많은 고난, 고통,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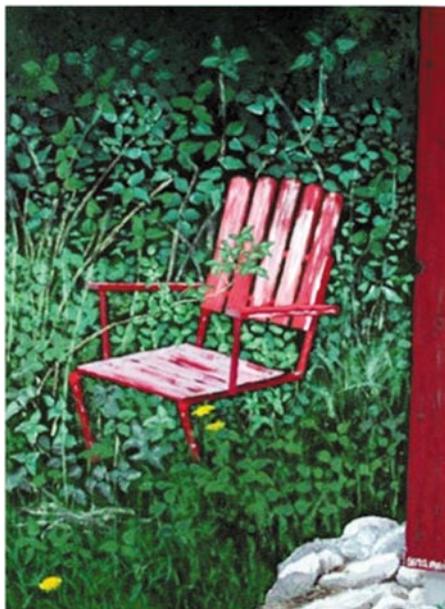
장애가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한다. 이 모

든 것에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한 아픔이 인간의 성품을 다듬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문제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필요요움이란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녀도 하나님에게 장애 없는 몸으로 바꿔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가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를 하면 허리에 통증이 쉽게 느껴지는데 그럴때면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 ‘팔이 있다면 좋겠다. 일하기가 훨씬 쉬워질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하고 아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역시 하나의 기적이라 생각한다. 미국 여성, 조니 일렉슨 타다는 잠수사고 때문에 신체가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장애와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레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고난이 와도 도와 줄 수 있는 남편과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중 제일 큰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기에 그녀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인이든 장애가 있든 타고난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 것이다. 키든 몸무게든 얼굴모습이든 몸매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남들이 보기에 모델이나 미스코리아같은 외모일지라도 본인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 어찌 외모뿐이라. 자신의 성격이나 집안배경, 학력, 경제수준 등 여러면에서 사람들은 결핍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기에 남들에게도 수용되지 못할까봐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공평한 하나님은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그렇게 각각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을 주셨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외적 모습을 지녔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는 영혼의 장막이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영혼이 살고 있는 소중한 육체가 바로 우리의 겉모습인 것이다. 즉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외형은 단지 외적인 껍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영혼이 담긴 그릇인 것이다.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 속에 담긴 영혼은 존재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생명체를 볼 줄 아는 자는 그 외형에 속지 않는다. 그 내면에 거주하는 생명체의 귀함을 아는 자일수록 외형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레나 부모가 그랬다. 자신의 아이가 팔이 없고 다리 한쪽마저 온전치 못하게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때 그들은 그 외형에 속아 그 내면에 담긴 아름다운 영혼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온전치 못한 외형이지만 그안에 담긴 생명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내적,외적인 자생력을 키워주었다. 그리고 레나도 그런 부모의 시각으로 자신을 수용하며 사랑했고 결국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보다는 외형에 집착하는 현 세대에 진정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든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된 귀중한 존재이다.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났든 우리는 타고난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멋진 드라마를 엮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다. 두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의 몸으로 멋진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레나보다 어쩔 더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는 연출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외형속에 담긴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영혼을 담은 우리의 육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사소송법(1)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은 몇 가지 설이 있으나 사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며 국가의 사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이다. 법치 국가에서는 개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사인의 권리 보호를 국가가 담당하도록 민사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상대자에 대하여 피해 배상 요구를 국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의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소송 제도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이란 민사 소송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민사 소송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은 양 측에게 공평하게 변론의 기회를 줘서 각각 변론하게 하고 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법적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며, 민사소송법과 다르게 소송을 진행시킨 경우에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니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나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하자는 데로 끌려가는 결과로 가게 되고 변호사 컨트롤이 어렵게 된다. 바람직하기는 소송 의뢰인이 민사 소송법의 절차와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에 대처함이 꼭 필요하다.

1. 민사 소송법의 법원(法源)

1.1. 민사 소송법

1848년 화란통치 시 제정하고 1941년 개정된 자바 및 마두라 지역을 관할하는 소송법인 H.I.R.(Het Hweziene Indonesisch yang diperbaharui : S.1848 No.16, S. 1941 No.44) 과 1927년 제정한 자바 및 마두리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송법인 Rbg.(Rechtsreglement Buitengewesten atau Reglemen Daerah Seberang)가 독립 국가를 건립한지 6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은 대법원에서 별도 법규를 준비하여 HIR 과 Rbg.를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다. 독립하여 건국 62년이 지난 나라가 새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지 않고 160년 전에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별난 나라임에 틀림없다.

1.2. 혼인에 관한 1974년 법률 제1호 및 혼인법 시행령인 혼인 허가, 혼인 금지, 이혼 및 혼인 취소 등에 관한 1975년 정부령 제9호

1.3. 이슬람 신자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을 관할하는 종교법원에 관한 1989년 법률 제7호

1.4. 대법원에 관한 1985년 법률 제14호

1.5. 일반법원에 관한 1986년 법률 제2호

1.6. 판례

1.7. 국제 협약

1.8.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1.9. 대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회서

2. 민사 소송법의 원칙

2.1. 당사자 소송 청구 원칙

소송 청구권자는 반드시 당사자 혹은 정당한 상속권자 이어야 하며, 사건의 당사자가 혹은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니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판사가 이니 시아티프를 쥐고 소송을 청구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금하며,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청구하면 판사는 반드시 소송 청구된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관련 법규가 없다든지 혹은 법규를 잘 모른다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을 금한다. 소송이 청구된 분야에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에도 판사에게는 반드시 소송이 청구된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민사 소송법에서 판사는 실정법, 관습법 및 관행 등 모든 법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되어 있으므로, “예” 를 들면 Jawa 출신의 판사가 오지인 Papua의 Wamena 지방법원에 부임하였는데 실정법으로는 재판이 불가한 Papua 부족의 관습에 관련된 소송이 접수된 경우에 판사는 Papua 문화 전문가 혹은 해당 부족의 관습 전문가를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법정에서 그 의견을 청취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2. 판사의 수동적 재판 원칙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위치는 소송 당사자가 제시한 사건과 내용만을 조사하여 판결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판사는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내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알부하거나 조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Rp.100억을 청구했다면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상한선은 Rp.100억이며, 혹시 판사가 Rp.100억 이상으로 판결했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 판사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판결을 잘 못 했다는 뜻이다. 아울러서 판사는 소송 당사자 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결할 의무가 있다.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했다면 판사에게 10가지 사항을 모두 조사하고 판결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소송이 청구된 10가지 사항 중에 7가지 사항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고 3가지 사항을 판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2.3. 재판 공개 원칙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절차, 변론절차 및 재판을 공개하여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 공개 제도는 재판의 공정과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판장은 개정 시 항상 재판 공개를 선언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 사회 안녕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사건, 가족 간의 사건 등은 비공개 재판을 선언하고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은 심리에만 국한되며 재판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로 해야 한다.

2.4. 쌍방 심리 원칙

쌍방 심리원칙이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소송 자료의 제출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고와 피고에게 주장과 변론의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하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2.5. 순차 제출 준수 원칙

민사 소송법에 정해진 단계/절차/시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단계가 지나면 지나간 단계/절차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예" 를 들면 심리 안건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외의 사항 처리는 불가하며 피고의 답변서 안건 처리 단계/절차가 지나가면 피고는 답변서 제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그 다음 단계/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민사 소송법은 단계/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6. 직접 심리 원칙

변론, 증거, 증인 등 조사를 담당 법관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 담당 법관이 직접 조사함으로써 사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7. 판결 근거 기재 원칙

재판부는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에 판결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결 근거로 증거에 입각한 상대방의 주장, 관계 법조문, 판례, 법리, 증인의 증언, 법관의 의견 등이 제시된다.

2.8. 간결, 신속 및 저렴 원칙

재판 절차가 간결해야 하며, 재판 진행이 신속해야 하며, 재판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9. 재판비 부담 원칙

재판에는 재판비가 발생하며 패소자가 재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수임 계약서

상대측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나 피소를 당하는 측 모두 사건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고 냉정하게 사실대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이나 문제를 현지법적으로 검토 해보고 형사 사건 인지, 민사 사건인지, 파산 사건인지, 상업 법원 사건인지, 상대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법적으로 강제 조치가 불가피한 사건인지, 강제 조치를 취했을 때에 상대로부터 어떠한 대응이 예상되는지, 사건이 본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건의 강제 해결이 거래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사건 자체의 법적인 위치와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하여 전문가의 개관적인 의견을 들어 본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사건 및 해결방법에 관하여 변호사의 Legal opinion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사건 및 해결방법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은 구두로 상담 후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변호사의 Legal opinion 을 받아 결정권자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함이 더 바람직하다. 의뢰인과 변호사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고, 특히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수임 계약서(Legal Service Agreement 혹은 Retainer Agreement)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변호사



의 서면보고 의무를 명시할 수 있다. 사건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사건처리에 관련된 경비 정산에 대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경비에 관한 사항도 수입 계약서에 숫자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의뢰는 의뢰인과 수입 변호사 간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기 전에 꼭 수입 계약서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계약서 체결 전에 변호사 자격증 유무 확인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믿기가 힘들겠지만 인도네시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처럼 법률사무소 광고를 내고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수입 계약서에 사건을 책임지고 핸들링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의뢰인의 의무

4.1. 사실 관계 설명 의무

의뢰인은 의뢰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입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정대리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일지라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관련된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증거물 채택주의인 재판에서 변론이 쉽지 않다.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상대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발생 순서대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전달 후 구두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의견과 희망 사항을 수입 변호사에게 요청한다. 의뢰인은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 계약위반, 부도덕성, 혹은 부당함을 강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명하므로 의뢰인의 설명은 통상 주관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인지하게하려면 의뢰인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물론이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나 혹시 부끄러운 사항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함이 바람직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설명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려면 사건의 전체를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차례의 법정 심리를 거치면서 원고와 피고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양측의 변론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전체가 다 들어나기 마련인 민사 소송 제도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혹은 사실을 숨기

고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의뢰인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정에서는 법리와 비법리적인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승소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수입 변호사의 현실적인 공동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4.2. 특별 위임장 제공 의무

수입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수입 변호사에게 특별 위임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특별 위임장이란 소송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라는 뜻이며, 관할법원에 등록 후에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4.3. 법률비 부담의 의무

의뢰인은 의뢰하는 사건 처리에 발생하는 법률비 부담 의무가 있다. 수입료, 소송 등록비, 수입인지세, 번역비, 공증비, 통신비, 교통비, 복사비, 여비 및 숙박비 등 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삼자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제 비용을 다 포함시켜 전체 법률비를 일정액으로 약정하는 Package 형태의 계약과 수입료는 정액으로 정하고 다른 경비는 실비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 방법이 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당 얼마로 계산한다는 로펌이 있으나 자카르타의 교통 체증, 시간 준수 정신이 부족하여 법정을 개정할 때까지 몇 시간씩을 기다려야 하는 법원의 현실과 재판부의 사정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 당 계산하는 형태의 수입 계약은 의뢰인에게 법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는 시간당 계산 형태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통상적인 수입계약의 형태는 일정액의 수입료를 정하고, 제 경비는 실비 정산하며, 승소 시에는 몇 %의 성공 보수를 준다는 형태의 수입계약이다. 수입료 액수는 변호사협회의 가이드 라인이 없이 의뢰인과 수입 변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자유 시장 체제이므로 동일 사건을 핸들링할지라도 로펌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수입 변호사의 의무

5.1. 성실 변론의 의무

수입 변호사의 첫째 의무는 성실 변론이다. 사건을 법리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변론하여야 한다. 소송 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의 설명, 증거물, 증인, 법규, 법리, 판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총동원하여 변론해야 한다. 공판이 증인 신문과 현장 심리를 제외하고는 구술 변론이 아닌 변론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이므로 수임 변호사의 변론장 작성 능력이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5.2. 소송 진행 상황 보고 의무

수임 변호사는 소송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송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변호사보다는 보고하지 않는 변호사가 더 많은 실정으므로 수임 변호사의 소송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수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위임장

수임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수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법원의 위임장에 관한 회소에서 규정한 형식 요건 및 실질 요건을 다 갖춰져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 위임장이거나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거나 법적 효력이 마찬가지이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국내에서 작성된 위임장과는 다른 절차와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대법원의 회서에 의하면, i)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 사항, ii) 위임자의 법적 지위, iii) 위임하는 사건에서의 위임자의 법적 위치, iv) 관할 법원, v) 사건 상대 당사자의 인적사항, vi) 사건의 목적 및 종류, vii) 위임장 작성지에서 공증, viii)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등록이 필요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은 인도네시아 국내 공인 번역사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위임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 후에야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인도네시아 해외 공판

을 거치지 않은 위임장일지라도 관할 법원에서 등록을 받아 주며 소송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회서에 규정된 인도네시아 해외공판의 미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용 위임장은 인도네시아 해외 공판에 등록을 마치고 수임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또 위임장 작성에 유의해야하는 사항은 민사 소송 목적으로 한 위임장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법정대리인이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더라도 이 위임장은 지방법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시에는 항소용 위임장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 시에는 상소용 위임장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항소 및 상소 시한이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오는 위임장이 시한을 넘기지 않고 도착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다.

7.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의 관계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준 위임장이 주문서이고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 간에 체결한 수임 계약서는 종속 문서이므로 위임장을 취소하면 수임 계약서는 자동으로 실효되며, 따라서 수임 계약서에 약정된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실효한다고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의 관계를 잘 못 이해하여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수임 계약서는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이며, 위임장은 수임 변호사가 법정 내외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활동할 권리를 부여한 서류이다. 따라서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은 서명 당사자, 즉, 법적 주체는 동일하지만 약정한 법적 목적물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서류이다.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경우에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실망하고 위임장 취소를 통보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가 실효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취소했노라고 통보하더라도 수임계약서는 쌍무계약이므로 수임 계약서에 약정된 변호사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임장을 취소한 결과로 수임 변호사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수임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한다. 위임장 취소는 의뢰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위임장 취소 권리 행사가 계약서에 약정된 수임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준 위임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수임계약서에 약정된 수임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의뢰인은 수임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은미
편집위원과
함께 읽는

이달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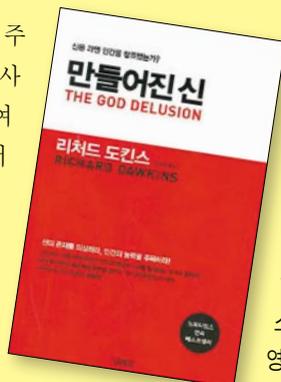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은 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살펴보는 책이다. 과학과 종교계에 과란을 일으킨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의 최신작으로, 미국의 광적인 신앙을 비판하며 무신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다. 저자는 신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신을 믿음으로써 벌어진 참혹한 전쟁과 기아와 빈곤 문제들을 일깨운다. 과학과 종교, 철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창조론의 이론적 모순과 잘못된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생물계의 복잡성이 이미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을 과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초자연적 지성이 있다는 신 가설에서부터 신이 만들었다는 태초 우주까지, 창조론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반박 이론을 제시하면서 창조론의 허울과 실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여러 논증을 역사적 증거와 과학적 논리로 파헤치며, 이런 논증들은 잘못된 믿음이 주는 환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신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역설하며, 여러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신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갔는지를 보여준다.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고, 미래 사회의 대안은 종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다.



컬처코드

Clotire Rapaille 지음, 김상철 옮김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페스트푸드는 왜 미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우리는 아파트 평수에 자존심을 걸까?
왜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목숨을 거는걸까?
왜 유독 명품에 열광하는 걸까?

일본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남자들은 여자들을 쉽게 유혹하는지, 전통차를 마시는 일본인에게 커피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세계가 좁아졌다. 하지만 같아진 것은 아니다.

미국남자와 미국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아이를 낳는다.

한국남자와 한국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아이를 낳는다.

국적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그렇다는 말이다.

고유의 문화속에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행동의 배후에 있는 참된의미를 아내의 열쇠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책의 주제다.

컬처코드란 자신이 속한 문화를 통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다.

문화가 다르면 코드도 다르다.

코드는 쇼핑, 건강, 음식, 사랑, 직업, 정치 등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

코드는 전세계 모든 인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와 더불어, 고객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저자 :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년 케냐 나이로비 출생.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했고 현재 옥스퍼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동물행동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 집단유전학, 발생학 등 과학 전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최근 영국 「프로스펙트」지의 여론 조사 결과 노엄 촘스키, 움베르토 에코에 이어 세계 최고 지성으로 뽑힐 정도로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다

미국 불황 빠지면 대책 없다

Made in USA: A Big slump



미국이 불황에 빠지면 세계는 대책이 없다. 6주 동안 일본·남아공·중동·싱가포르·홍콩·중국·호주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런 확신을 얻었다. 만나본 사람 대부분은 이제 세계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아시아와 유럽 경제가 갈수록 튼튼해져 미국 경제가 일시 둔화하더라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만일 미국 경제의 일시 둔화가 일시가 아니라면? 그 튼튼하다는 세계경제가 실은 기꺼이 시인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 경제에 종속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외국인들은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일시 둔화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선호하는 분석을 깊이 신뢰한다. 현재 경제가 주춤하기는 해도 주택경기의 후퇴와 관련한 현상일 뿐 13조 달러 규모의 나머지 미국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지난 2006년 9월과 10월 소매판매와 생산 지수가 하락했다. 게다가 월마트의 11월 영업 실적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자신뢰 지수가 떨어지는 중이어서 연말연시인데도 시장에 활기가 없다. 정작 둔화의 개념과는 무관한 줄 알았던 분야인 고정투자에 더 큰 충격이 왔다. 10월 들어 자본재 주문과 선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업지출의 전망이 진지한 의문으로 대두됐다. 10월과 11월에 나타난 기업의 구매 자제 분위기와 취업 성장률 감소도 우려된다. 주택 시공이 이제 바닥을 쳤는지 아닌지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경기하락의 영향이 이제 막 건설 활동, 건설 인력 취업, 소득 증대의 약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안다.

여기서 미국 경제에는 방화벽이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6년 전의 닷컴이나 현재의 주택경기처럼 지나가던 분야의 거품이 꺼지면 파문이 결국 다른 분야로 확산된다.

지난 5년에 걸친 주거용 건설 취업 인력의 15% 상승만 지금까지 줄지 않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택관련 일자리가 계속 줄면서 임금소득도 압력을 받을 테고, 그것이 소비자들을 쥐어짜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도 더욱 몸을 사리면서 자본지출을 줄인다. 미국 경제의 일시 둔화는 이미 성장률이 2% 문턱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 침체”로 접어든 듯하다. 또 한 차례의 충격과만 몰려오면 미국 경제는 곧바로 경기침체로 들어간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느긋하던 세계는 냉엄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우선 중국을 보자. 경제규모가 세계 4위이며 세계경제의 공급을 주도하는 제조업 견인차라는 주도적 역할을 날로 높여간다. 수출 비중은 GDP의 약 35%로 경제대국 중에서 가장 높다. 최대 시장은 미국이다. 아시아의 다른 개도국은 미국의 수요가 끌고 가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물건을 대는 주요 납품업자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후퇴는 아시아 지역 전체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보자. 이 나라 역시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크며 미국과 중국이 양대 시장이다. 경제규모 8위인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GDP의 꼬박 27%를 차지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서열 13위인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GDP의 24%다.

따라서 미국의 성장 부진이 다른 나라에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는 허구다. 미국 등지로의 수출 부진이 남긴 공백을 채우는 손 큰 소비자들이 아시아와 유럽 경제를 받쳐준다는 생각 역시 틀렸다.

아시아 개도국들의 소비는 이 지역 GDP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1970년대 초의 70%에 비하면 엄청난 감소다. 동시에 개인소비 증가가 유럽 전체의 GDP 성장에 기여한 몫은 고작 1%포인트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성장 견인차의 속도가 떨어질 때 소비가 불충분한 아시아와 유럽 경제가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시도를 했다가는 곧 궤도에서 탈선하고 만다.

세계경제는 지난 4년 동안 1970년대 초 이후 유례없는 호경기를 누려왔다. 세계 각국은 유동성장세 금융시장의 거품 속에 갇혀 2007년에도 호시절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기 후퇴가 그런 느긋한 기분들에 일침을 놓을 참이다.



박영민의

영혼

Talk Talk

THE TRIP TO BOUNTIFUL

말(言語)이라는 것은 재미있습니
다. 쓰는 사람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 사이에는 늘 말로 설명될 수 없
는 틈이 생겨납니다. 의미의 공백이

랄까요, 말의 무늬 또는 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틈새의
공간을 파고들어 꾸며주는 것이 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詩語들은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난(蘭)이나 에
델바이스 같은 화초들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같은
주체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둘의 생각을 빈틈없이 주고
받기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맞고스톱을 쳐도 돈이 비
게 마련이라는 세간의 농담처럼, 말로는 정확히 옮겨지
지 않는 ‘말의 잔돈’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주변을 맴돕니
다.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말벗의 존재는 그토록 즐겁고 귀한 것입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런 知音之友들의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탐구에서 선구적이던 SF 작가 아이
작 아시모프도 이런 ‘말의 틈새공간’을 보았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Bicentennial Man(1991)의 원작이
었던 그의 소설 ‘양자인간(The Positronic Man)’에서, 주
인공 로봇인 NDR-113은 양자두뇌 회로의 불확정적 특
성 덕분에 뜻하지 않게 ‘배움’을 거듭합니다. 친절한 주인
들로부터 앤드루 마틴이라는 이름까지 선사 받은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완벽한 문법과 어휘 프로그램이 내장
되어 있는데도 인간들처럼 언어를 소통할 수 없다는 사
실을 깨닫습니다. 속어와 반어법, 역설법 등이 그를 어리
둥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봇 앤드루는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로



봇이 자리를 비운 안내 데스크를 보면서 ‘unmanned’라고
해야 할지, ‘unroboted’라고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충원
한다는 뜻의 ‘man’은 여성에게
도 쓰니까 로봇에게도 써야 하는 것일까? 라고 말이지요.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사용
하는 인간의 언어는 그런 식의 사소하지만 다루기 힘든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

앤드루에게 위안이 될 만한
사실은, 인간에게도 말은 언제
나 다루기 힘들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천 냥 빚
을 갚는가 하면, 속에 뼈가 있
기도 하고, 발이 없어도 천리
를 가지만, 곱게 오려면 곱게
가야 한다는 말이란 것은, 오
로지 생각의 근사치만을 표현
하고 전달하고 기록하는 도구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생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생각은 말의 몸을 입어야 비로소 꼴을 갖추게 됩니
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인지 분명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글머리에 저는 詩가 말과 말의 틈에서 자란다고 적었
습니다만, 실은 모든 예술의 원산지는 말과 생각의 이러
한 틈새입니다.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노력, 명확히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에
어떻게든 형태를 입혀보려는 노력의 다른 이름이 예술
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말처럼, ‘사유 앞에서 모
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표현될 수 없는 영역에 너무 깊이 매혹되면 반지
성적인 태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을 찾는 여행
자는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의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막
고 뒤통에 몸을 묶어야 합니다. 지식은, 말과 생각의 틈
새를 가꾸면서 거기 머무는 대신, 그것을 때워 없애려는





노력입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공화국에서 시인들을 추방하고 철인들을 우대하려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식을 경외하지만, 설명될 수 없는 것들에 자주 미혹되어 주저했다 보니, 아마 플라톤의 공화국에는 입국금지당할 부류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합리적 이성 of 세레도 받았으므로 不可知의 도원경에 제 짐을 다 풀어놓고 영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예술분야들 중에서도 연극, 영화, 소설처럼 내러티브 중심의 텍스트로 현실을 모사(simile)하는 것들은 말과 생각의 두 세계를 이어주는 매체(medium)의 성격이 짙습니다. 저 같은 유랑객들에게는 마치 중간휴게소 같은 장르들이죠.

어두운 극장 속에서, 말의 나라와 생각의 나라는 서로 다투는 대신, 하나가 됩니다.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영상에 차곡차곡 탑재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극장을 찾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극장 문을 나서면서 나비 꿈을 깬 장자처럼 내가 속한 속세를 떨쳐이서 한번 굶어보게 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개중에도, 우리의 전신을 휘감아 유난히 내밀한 생각의 나라로 데려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잠을 깨고 나서도 기억나는 꿈들처럼.

1986년에 제럴딘 페이지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The Trip to Bountiful*이라는 영화가, 제게는 그런 영화들 중 하나입니다. (이 상은 여덟 번 후보에 지명되었던 페이지가 향년 62세에 탄 첫 오스카 주연상이었습니다.)

캐리 와츠 여사(제럴딘 페이지)는 휴스턴의 아파트에서 아들내외와 함께 살면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죽기 전에 어릴 적 고향인 바운티폴을 가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내외는 바쁜 일상과 빠듯한 살림에 쫓겨 여행을 떠날 엄두를 못 내는 소시민들입니다.

공처가인 아들은 소심한 효자이기도 해서 건강이 염려스러운 어머니가 혼자 여행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매달 몇 푼 안 되는 노인생활보조금 수표가 올 때마다 여행을 꿈꾸던 캐리는 어느 날 고향을 향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흔히 로드무비는 성장과 깨달음에 관한 영화이기 일쑤지만, 캐리가 자신의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은 재할이고, 꿈의 성취입니다. 그 꿈은, 연어의 마지막 회귀 여행처럼 용감하고 보람차면서, 동시에 서글프고 가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말에도 틈새가 있거늘, 하물며 다른 나라의 말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우리말의 ‘가족(사람)’과 ‘집(장소)’의 중간에 놓인 ‘가정’은 장소보다는 사람에 더 무게가 쏠린 느낌이고, 영어의 ‘Family(사람)’와 ‘House(장소)’의 중간에 놓인 ‘Home’은 사람보다는 장소에 더 치중한 표현인 것처럼.

그래서일까요? 사람들 사이의 질긴 정을 그린 영화는 길소뜸이나 친구 같은 우리 영화가 더 끌리고, 추억 속의 장소가 체화하고 있는 그리움을 드러내는 영화는 *The Trip to Bountiful*, *Marianne de ma jeunesse*, *Waterloo Bridge* 같은 서양 영화들이 오히려 더 절절한 것 같습니다. 하긴, 눈이 핑핑 도는 경제성장의 여파로 우리에게 불과 십여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고향’조차 드물어진 탓도 있겠군요.

캐리 할머니는 휴스턴의 멀쩡한 집에 살지만, 그녀가 ‘Home’이라고 부르는 곳은 언제나 바운티폴을 가리킵니다. 노년에 찾아갈 고향이 줄곧 그 자리에서 옛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캐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간 어린 시절의 녹변동도, 이문동도 옛 집의 흔적을 찾기는커녕 동네를 알아볼 길조차 없을 정도로 변해 있더군요.

저의 바운티폴은 부산 용두산 기슭의 외갓집이었습니다. 초겨울 이른 벌이 따스던 잔디밭이 있고, 여름에는 뒷마당 대밭의 바람소리가 시원하던 이층집. 외삼촌 서재의 낡은 책 냄새가 좋아서 그 방에서 낮잠을 자주 청했었고, 문간방에 차려진 외삼촌의 화실은 예술을 지근거리에서 사귄 수 있는 호젓한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어머니의 처녀적으로 시간여행을 허락하던 외갓집,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만 같던 그 멋들어진 양옥집이 있던 자리도,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직육면체의 검고 덩지 큰 빌딩이 대신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가집

소철나무 한 그루 가마득히 높아
용두산 기슭의 외가집 마당은
대나무 담장 아래 南國이었다.
뒤뜰에서 끓던 추어탕 비록
장국은 익숙해도 산초향 간질간질 낯설듯이
동백나무 발치에 숨어 씌 없이 소곤대던 팬지꽃들
여기는 異國이야 남쪽 나라야

질은 별 열은 꽃잎 다 흩어지고
사이좋던 외삼촌들 시애틀로 광안리로 용산으로
그 아이들은 흩씨처럼 더 멀리 뿔뿔이
흩어질 힘 있는 것 다 흩어진 뒤에도
새벽마다 총채로 없는 언지 털어내시며
깔깔깔 소녀처럼 잘 웃으시던 외할머니
치매로 고생하시는 동안 총채처럼 메마르고
동광동 산마루의 화초들도 메말랐다

이제 나는 다 자라 내 씨앗들을 보듬은 채
물처럼 흐르던 시간 물처럼 고이는
이국에서 외할머니의 메마른 부음을 받았다
용두산을 그리워하지 않고 사는 법
이제 거반 익혀가지만
나도 흩씨 터칠 날을 향해 익어가지만 그래도
흩을수록 고이는 것들이 있다

여름 뿐인 남의 땅 南國에 와서
나는 내가 되돌아갈 곳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외할머니의 추어탕처럼 진하고 뜨거운 이곳
앞마당 해그늘에 잠깐 쉬어 가던 뽕바람
그 가늘고 기다란 바람 속의 대꽃 향기여
자카르타의 소철이여
한가로이 익히지 못할 깔깔깔
웃음소리여



화사첨족

1. Trip to Bountiful에서 캐리 할머니의 기차여행에 말동무를 해주는 예쁜 아가씨 켈마 역을 맡았던 배우는 레베카 드모네였습니다. 레베카는 제가 좋아하기엔 좀 너무 드센 인상이긴 한데, 그 미모나 연기력에 비해서 캐스팅 운은 참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Trip to Bountiful은 그녀의 출연작중 유일한, 영화다운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제랄딘 페이지는 언젠가, 자신은 브로드웨이에 자주 출연하는 할리우드 배우가 되고 싶어했던 적은 없었고,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년에 받은 여우주연상은, 받을만한 사람한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상식에서 발표자는 봉투를 개봉하더니 '영어권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에게 상이 돌아갔군요' (또는 그 비슷하게) 말했다고, 그 해 Out of Africa로 같이 후보에 올랐었던 메릴 스트립은 벌떡 일어나 한참 동안 기립박수를 쳤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2-3년에 한 번 꼴로 수상후보에 올라서,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녀가 후보에 드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이니, 그녀는 아마 진정으로 노배우를 위해 기뻐해줄 여유를 가진 것처럼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메릴 스트립이었던더라도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다른 자세는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7 수마트라

Sumatera, Tanah Pusaka 조상의 신성지 수마트라



Pulau Sumatera merupakan pulau ketiga terbesar di Nusantara, dan terbagi atas sembilan provinsi : Nanggroe Aceh Darusalam,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dan Kepulauan Riau, Jambi, Bengkulu, Bangka-Belitung, Lampung dan Sumatera Selatan. Pegunungan Bukit Barisan yang terbentang sepanjang pulau telah menciptakan pemandangan alam yang sangat indah, dari hutan tropis lebat yang menyelimuti hampir empat per lima pulau Sumatera, garis pantai yang berbukit-bukit, pantai yang lebar, hingga ngarai dan rawa yang berhawa lembab.

수마트라는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그리고 9개의 지방도시로 분리되어 있다. 아째, 북부수마트라, 서부 수마트라, 리아우, 리아우 섬, 잠비, 벵골루, 방가 빌리똥, 남부수마트라이다. 섬 모두는 대부분이 높은 산맥으로 연결 되어 있고,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답다. 열대의 정글은 울창한 숲으로 4/5가 덮여 있고, 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산이 우뚝 우뚝 솟아 있고, 넓은 해변과 더불어 습기가 많은 지역의 나가라이와 라와 라는 곳도 있다.

Daya Tarik Alam

흥미를 안겨 주는 자연의 힘

Sungai-sungai yang melintasi Sumatera berasal dari danau-danau yang banyak terdapat di pulau tersebut, dan yang paling tersohor adalah Danau Toba yang terletak di ketinggian 906 m di atas permukaan laut. Dengan luas 1.700 Km², Toba adalah danau terbesar di Asia Tenggara dan merupakan yang terdalam di Dunia (450 m). Danau Toba berbatas dengan pantai berpasir dan hutan pinus serta dikelilingi oleh lereng-lereng pegunungan dan tebing-tebing yang curam. Di tengah danau terdapat pulau Samosir, tanah suku Batak Toba yang dapat dicapai dengan feri.

Salah satu daerah tercantik di Sumatera adalah dataran tinggi Sumatera Barat yang berhawa sejuk dengan pemandangan Lembah Anai yang menakjubkan, dan merupakan daerah orang Minangkabau.

Ciri khas yang dominan di daerah tersebut adalah desain bangunan tradisional Rumah Gadang yang memiliki atap bertanduk. Sebuah kota yang elok, Bukit Tinggi terletak 100 Km utara ibukota provinsi, Padang yang menawarkan pemandangan mengagumkan dengan lembah yang subur serta gunung berapi, Merapi dan Singgalang.

Seperti sebagian besar kelompok etnis di Indonesia yang memiliki tradisi tenun turun menurun, suku Minangkabau dari Sumatera Barat mewarisi Kain Songket, sebuah hasil tenunan tangan dengan desain yang indah dan bersulam emas.

수마트라를 가로 지르고 있는 많은 강과 호수 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호수로는 "또바" 호수이고, 해발 906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호수 전체의 넓이는 1.700 km²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 이고,호수의 깊이는 약 450M로서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고 한다. 또바 호수의 해변 주위로는 흰 모래 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로 늪과 계곡을 가르치르는 위험한 낭떠러지의 가파른 지역의 경사진 곳이 줄이어 있다. 그 한 가운데 호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삼호시르" 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바 바타 종족 들은 페리나 선박 등을 자주 이용하여 그 섬에 도착 했다고 한다. 수마트라의 아름다운 지역으로는 해발이 가장 높다고 하는 서부 수마트라 지역 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가 너무 시원한 안나이 산 골짜기의 경우에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신비롭기가 그지 없다. 이 지역을 "미낭카바우" 지역 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알려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 가옥의 형태는 그 가옥 구조의 건축양식 스타일은 "가당" 이라는 집으로서 지붕은 마치 소뿔 모양으로 서 만들어져 있다.이 지역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그 주변으로는 우리에게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북킥 땅기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북부 수도 파당으로 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일본 동굴(Goa Jepang)과 아름다운 계곡과 골짜기, 므라피, 싱갈랑, 화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이들 종족 들은 또한 전통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옷감 천을 만드는 일을 이미 오래전 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아 하고있다.

서부 수마트라 미낭카바우 종족은 천으로 만든 송갯, 이 전통 제품은 직접 손으로 직접 천을 짜서 만든 순수 자연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색채의 경우 금색을 불어 넣어 만든 제품으로서, 이 지역 특상품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Perjalanan ke dataran rendah Sumatera Selatan membawa anda ke Lampung dan Taman Nasional Way Kambas yang terkenal akan kelihaihan gajah-gajah lindung dalam bermain sepak bola sebagai suatu atraksi bagi para turis.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로 거슬러 내려 가시면 람퐁 지역과 웨이 깡바스 국립 박물관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을 주로 찾는 방문 관광객들이 람퐁 지역의 코끼리 쇼 모기와 코끼리들이 직접 축구 놀이를 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Menjumpai Penduduk Asli

원주민을 만난다

Terletak di dataran tinggi Karo, kota Brastagi adalah tanah air bagi suku Batak Karo dan di kelilingi dua gunung berapi, Sinabung dan Sibanyak. Desa-desanya kampung Peceren, Lingga, Cingkes, dan Barusjahe yang terpencil memiliki kurang lebih dua puluh rumah tradisional Batak yang masih ditinggali dan dalam kondisi yang bagus. Banyak pula yang dapat dilihat di ibukota Sumatera Utara, Medan, seperti Istana Maimoon dan Masjid Raya yang beratap hit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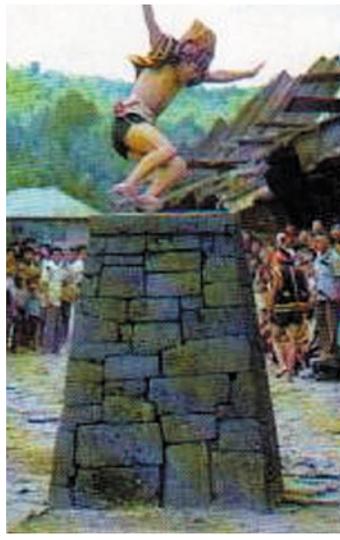
Selain alam yang indah, berbagai suku etnis yang mendiami Pulau Sumatera merupakan daya tarik tersendiri dengan kekayaan budaya mereka yang ditampilkan melalui tari-tarian, adat kebiasaan serta arsitektur tradisional mereka. Di Pulau Nias, masyarakatnya masih menganut kehidupan dari zaman neolitik dan melestarikan tradisi megalitik yang menampilkan monumen-monumen dari batu, tarian perang dan pertarungan ritual yang disebut Tulotolo dan Fahombe, dimana para anggota suku meloncati dinding batu setinggi 2.5 m sambil mengayunkan pedang.

Yukitrobu dari daerah tinggi Karo, "브라스따기" 라는 바닷가 쪽의 땅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2개의 높은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의 중심으로 씨나봉, 씨바약이라고 부른다. Peceren, Lingga, Cingkes의 시골 마을 바루스자헤 마을은 아직도 바닷가 모퉁이의 전통 가옥 20여채가 그 형태나 모습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아직 그 곳에는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전한다.

북부 수마트라에서는 특히 많은 것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가운데, 특히 메단 도시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문 궁전"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지붕의 색깔이 독특한 검은색의 중앙 마스 집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수마트라에는 여러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 종족 각자의 이름대로 자신들의 전통적이고 개인적인 독특한 삶과 고유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들 종족들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민속춤, 관습, 전통 음식, 전통의 가옥 구조의 건축 양식마저도 제각기 다르다.

니아스 섬에는 아직도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 생활과 제각기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고, 신석기 시대와 같은 석기 문화 등의 기념비, 비



석, 석탑이 있으며, 오랜 종교 전쟁에서의 영향으로 그 전통 춤 Tulotolo, Fahombe라는 춤이 있으며, 이들 종족들의 춤의 특성은 대부분 주로 무게 있고 날렵한 칼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영향하에서 인지 이들의 전통 놀이 행사 중에는 특이하게도 보통 약 2.5M 높이의 높은 벽을 뛰어 넘는 계단 높이 뛰기 행사도 자주 열리고 있다.

Suku Mentawai hidup terisolasi di pulau yang bernama sama dan mempertahankan tradisi turun menurun yang masih dipengaruhi kepercayaan animis. Di Pulau Siberut, suku Sakhal juga masih melestarikan budaya berburu dan hidup dari hasil hutan dari zaman Neolitik. Kepercayaan bahwa segala unsur alam memiliki jiwa menjadikan mereka suku yang sangat menghargai lingkungan mereka.

문파와이 종족은 현대 문화와 전혀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해 오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를 계속 유지 보존하면서 전통 무속신앙을 주로 믿어 오고 있다. Siberut 섬에는 사카이 라는 종족이 아직도 원시적인 사냥과 정글 내에서 주로 의식주를 생활화 하면서 하루 하루 생활로서, 그들의 경제적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들 나름대로의 원시적 믿음 속에는 그들의 종족들이 지역 내의 자연환경을 숭배하고 보존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신과 같은 주인처럼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Aktifitas Berpetual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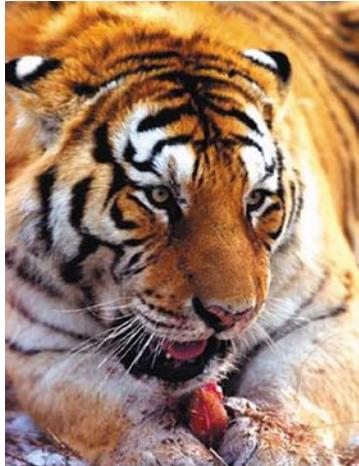
방랑객의 활동 반경

Sumatera adalah surga bagi para pecinta alam. Taman-taman nasional terdapat di utara hingga selatan pulau tersebut. Taman Nasional Gunung Leuser di Aceh adalah salah satu taman nasional terbesar di dunia dan memiliki beraneka jenis binatang primata, seperti gibbon, orangutan, serta Badak Sumatra, harimau dan gajah.

Di Sumatera Utara, Hutan Lindung Bukit Barisan sering dikunjungi para pemerhati alam. Sekitar 10 jam dengan mengendarai mobil dari Padang, terdapat Taman Nasional Kerinci Seblat mengelilingi gunung berapi Kerinci (3805 m) yang masih aktif.

Sebagai taman satwa terbesar di Sumatra, daerah hutan dataran rendah Kerinci Seblat melindungi satwa liar, seperti badak, harimau, clouded leopard, gajah, serta beragam jenis spesies burung. Menuju ke arah timur, gunung Kerinci adalah surga pecinta dan ahli tanam-tanaman, yaitu di Danau Bentu yang merupakan rawa berair tawar.

Sepanjang garis pantainya yang panjang yang menghadap ke Samudera Hindia, Sumatera menawarkan kegiatan bahari yang sangat mengasyikan di Indonesia. Dari Banda Aceh, Pulau Weh



terletak di ujung paling utara Sumatra dan memiliki kehidupan bahari yang sangat kaya. Taman Laut Rubiah merupakan kawasan yang dilindungi sekaligus surga bagi kegiatan snorkeling dan menyelam (dengan tingkat penglihatan hingga kedalaman 25 m), atau mengagumi terumbu karang dengan menggunakan perahu berdasar kaca. Anda dapat pula menjelajahi perairan dangkal di sekitar kepulauan Sibolga dan kepulauan Banyak dengan dasar laut yang berhias beraneka ragam karang.



수마트라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립공원은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섬으로까지 아주 길게 펼쳐져 있다.

아째 지역내의 Leuser산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아주 귀하고 볼 수 없는 희귀종의 동물군이 많이 있고, 그 규모나 동물군의 종류만도 적지 않은 숫자의 대규모의 국립공원의 동물원이다. 예를 들자면 gibbon, 오랑우탄 수마트라 코뿔소, 호랑이, 코끼리 등의 야생동물이 있다.



북부 수마트라에는, 자연을 보호하는 산림 지역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로 즐겨 찾는다고 한다. 빠당으로부터 약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계속 달리게 되면 Kerinci Seblat 국립공원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변으로는 Kerinci (3805M)을 만난다. 그리고 자연동물의 날 짐승들이 Kerinci Seblat의 산을 중심으로 하여 코뿔소 호랑이, 표범, 코끼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Kerinci 동쪽 방향의 산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이며, Bantu 호수의 맑은 민물은 마치 자연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해변은 인도양을 걸쳐 널리 펼쳐져 있다. 보트 여행은 수마트라지역내에서 최고의 적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다 아째는 수마트라 북부 끝 상단 부분의 지역 Weh섬에 위치하고 있다. 해상 선박, 해상 지역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명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Rubiah해양 공원은 "Snorkelling" 과 잠수 (유관으로 25m의 깊이를 볼 수 있다)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통하여 그 창문 사이의 외관 유리관을 통하여 바다 속의 천연의 아름다운 풍경의 각종 신비로운 산호와 희귀종의 바다고기 등을 볼 수 있다.



Menghadap laut lepas, garis pantai sisi barat Sumatra, termasuk perairan di Pulau Nias memiliki

ombak-ombak besar dan pantai selancar terbaik di Indonesia. Kepulauan Mentawai di lepas pantai Sunatra Barat di kelilingi terumbu karang yang elok, sangat ideal untuk menyelam. Namun daerah menyelam yang terbaik mungkin ada di sekitar Pulau Pieh. Sebuah dinding batu setinggi 40 m dari dasar laut yang berpasir dihiasi terumbu karang keras dan karang lunak yang indah dengan beragam ikan dan binatang laut lainnya. Bagi yang menyenangi olahraga menyelam di malam hari, perairan di sekitar Provinsi Kepulauan Riau menawarkan pengalaman yang memuaskan dengan kekayaan binatang-binatang berkulit keras dan binatang pemburu laut yang keluar di malam hari.

그리고 Sibolga 섬이나 또 다른 많은 섬 내의 얇은 바닷물을 통해 각종 오색 찬란한 천연의 살아 있는 산호들을 구경할 수도 있다. 서부 수마트라에 위치하고 있는 니아스 섬을 중심으로 파도 타기 및 윈드 서핑 등 바다 해양스포츠의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다 해저 내의 잠수를 통하여 오색찬란한 산호들을 또한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다. 피섬은 바다 밑으로 부터의 약 40M의 암벽과 더불어 강하고 부드러운 산호초와 바다 해초들 그리고 수 많은 종류의 바다 물 고기와 바다 동물들이 살고 있다. 리아우 섬 내에는 또한 이와같은 바다 물고기 등의 가족을 채취하려는 바다 사냥꾼들이 주로 야밤을 이용하여 바다 낚시 사냥을 즐기곤 한다.

Beraneka Ragam Kegiatan

다양한 이색 체험

Sebagai wilayah yang mayoritas penduduknya memeluk agama Islam, peristiwa-peristiwa penting yang diselenggarakan kebanyakan berkaitan dengan peringatan agama. Namun upacara-upacara perkawinan setempat merupakan sebuah hajatan besar dimana tari-tarian dan pakaian adat indah dan meriah dapat memukau mata yang memandang.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다. 행사 중의 거의 큰 행사가 대부분 종교 행사라고 보면 된다. 결혼 예식, 성인식 등의 행사에는 춤과 그 지역 문화 전통 예술을 선보이게 되므로써 주로 볼거리가 많다.

Arung Jeram

래프팅

Mengarungi jeram dan tikungan berkelok Krueng Tripa dan Sungai Alas akan menjadikan Anda basah kuyup dan tenggelam dalam suatu petualangan yang mendebarkan.

Krueng Tripa와 아라스강을 중심으로 계곡의 맑은 물과 이를 지나는 정글 숲을 중심으로 천연의 계곡과 바위 절벽 등의 경관은 일반 모험가들에게 정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준다.

Pulau Surga

천국의 섬

Pulau Bintan adalah bagian dari kepulauan Riau dan terletak hanya 45 Km sebelah tenggara Singapura. Keindahan pulau tropis menjadi latar bagi beraneka macam kegiatan santai maupun bersemangat yang ditawarkan bagi para wisatawan disana, dari spa untuk memanjakan jiwa dan raga, hingga berselancar, wakeboarding, snorkelling, dan menyelam.

빈담, 리아우 섬은 싱가포르 동남지역으로 부터 약 45Km 정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아 국내외 관광객들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자연 온천의 스파와 해양 스포츠, 레저 등으로 피부미용, 건강관리, 원드서핑, 스노클링, 웨이크보딩 잠수 등을 즐길 수도 있다.

Surga Bagi Para Ekolog

산악인들의 천국

Pulau Tuangku dan Bangkaru di mana hutan tropis dataran rendah, hutan bakau dan sebuah hutan rawa air tawar tetap tak terjamah dan terganggu.

Tuangku/Bangkaru 섬의 열대 정글은 아직도 천연의 처녀림의 자연의 모습과 맑고 깨끗한 샘물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맑고 아름답다.

Suku Batak, Kain Tenun Ulos

바탁 종족의 Ulos 천



Memiliki system patrilineal yang kuat, suku Batak dahulu menganut kepercayaan animis dan tinggal di rumah panjang. Sekitar 10 atau lebih kepala keluarga hidup dalam rumah-rumah panjang batak yang dibangun dengan menggunakan susunan kayu-kayu yang kokoh dan beratap daun kelapa membentuk sebuah pelana. Walaupun hanya diikat dengan tali dan pasak-pasak kayu tanpa menggunakan paku, bangunan-bangunan ini dapat bertahan hingga berabad-abad lamanya. Pasu-pasu kuno tempat menyimpan abu jenazah, sarkofagus berukuran serta rumah-rumah tradisional masih banyak terdapat di Samosir. Terkenal akan kemampuan bermain musik khas daerah, suku batak sangat bangga akan kain ulos mereka yang memiliki nilai tradisi yang tak terhingga.

Beberapa daya tarik yang terdapat di wilayah tersebut adalah Kebun Botani Medan, Air Terjun Sipisopiso, kota dagang Haranggoi, dan Istana Batak di desa Pematang Purba.

가족 중심제가 강한 바탁 종족 인들은 전에는 무속신앙을 굳게 믿고 주로 긴 집의 주택 형태를 중심으로 약 10채 이상 가옥 내의 그 긴 집에서 살고 있으며, 가옥 구조의 형태는 주로 나무를 이용하고 지붕은 아자수 잎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나무 판자 이음 방법 특수 건축으로 못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중심으로 끈이나 매듭 등으로 묶어서 옥 매듭을 지어 만들어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들어 진 집은 대부분 수 십년이 가도 전혀 손상됨이 없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고 한다. 옛날의 Pasu-Pasu 라는 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시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와같은 광경은 아직 다나우 또바 내의 삼호시르 섬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역내의 전통 유적이거나 유물 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몇몇 가볼만한 지역으로는 메단의 Kebon Botani, Sipisopiso 폭포, Haranggoi 상가, Permata Purba 마을 등 바탁 전통 왕궁 등을 들어볼 수 있다.

Berbelanja

쇼핑

Keragaman suku etnis pulau Sumatera menjadikan kegiatan berbelanja di daerah tersebut sebuah pengalaman yang mengasyikan. Barang-barang yang menarik antara lain adalah kain tenun dari berbagai daerah, seperti Ulos Batak dari daerah Medan dan sekitarnya, Kain Songket bersulam emas dari Sumatera Barat dan Sumatera Selatan, dan tidak lupa patung dan hasil ukir.

수마트라에서는 각 종족 들의 가내수공업 제품에 대한 쇼핑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전통의 제품으로는 바탁 종족의 대표적인 전통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메단 지역내의 특산물 Ulos 천연 섬유제품 등이다. 서부 남부 수마트라의 Songket, 천, 금빛 장식품 등 여러 종류의 나무 조각의 목각 제품들 또한 유명한 특산물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Pedas dan Berbumbu

매운 양념 맛

Masakan dari pulau Sumatera pada umumnya kaya akan bumbu dan pedas karena banyak menggunakan beragam rempah-rempah dan santan yang kental untuk menghasilkan masakan-masakan sejenis kari. Daging sapi dan sebagian besar bagian dalam dan luar hewan tersebut juga dimanfaatkan dalam masakan-masakan.

수마트라 섬내의 음식 들은 대부분이 매운 맛이 나며 특히 향신료 등을 많이 써서 만든 쇠고기의 육류 및 허파 등의 소내부 위 부분 등의 내장부위 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만든 마른 음식과 양념을 곁들여 만든 음식 등을 접할 수 있다.





대구가톨릭의대, 인도네시아 가톨릭 의대와 자매결연

대구가톨릭의대(학장 이태성 교수)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에 있는 인도네시아 유일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인 아트마자야 가톨릭의대(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Indonesia)와 협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서는 의학교육, 연구, 임상의학, 병원경영 등 모든 분야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협정서 서명식에는 대구가톨릭의대를 대표해 박정환 교수(전 학장)가 참석했으며, 협정서 서명식을 기념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독지가와 더불어 미화 4만2000달러 상당의 구급차 한대와 구급차에 필요한 응급치료장비 일체를 기증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할 때 주로 선진국 대학들과 결연을 맺고 그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번 대구가톨릭대학의 경우는 지원하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결연이었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의료원장 채영희 신부는 “인구 2억3000만명 중 대다수가 무슬림이고 가톨릭이 1.5% 정도의 소수인 나라에 단 하나뿐인 가톨릭의과대학과 자매관계를 맺고 가톨릭신앙을 바탕으로 한 의학교육과 의뢰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맺은 이번 자매결연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이념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빠뿌아주민, 폭탄주 마시고 한 주에 13명 사망

[스피드뉴스/자카르타] 빠뿌아 지역에서 알코올음료의 판매 제한과 높은 가격은 이곳의 애주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빠뿌아의 애주가들은 비싼 알코올 음료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구하기도 어려워 약국에서 소독용도의 70% 에탄올을 사서, 자양강장제와 연유를 혼합해 만든 빠뿌아식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빠뿌아 주도 자야뿌라와 인

근지역에서 이 같은 에탄올 혼합주를 마신 애주가들이 1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여성 2명과 대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비정부단체들은 이와 같은 빠뿌아의 사회문제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세로 알코올음료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지방정부의 규정상 알코올음료 판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 발생한 것이므로 범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와섬에서 1병에 8천 루피아하는 값싼 보드카가 빠뿌아에서는 5만5천 루피아 이상 그리고 맥주 한 병은 3만3천 루피아에 팔리고 있다”며 “따라서 건설노동자나 학생들이 값싼 에탄올을 혼합한 알코올음료를 제조해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지방정부가 주세를 높여 가격을 올리면 알코올 음료를 주민들이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단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인간 대 인간 감염 확인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일가족 7명이 걸린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인간 대 인간’ 감염에 의한 집단발병임이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의 연구팀은 전날 자체 개발한 ‘트랜스탯’(TranStat)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5월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州)의 쿠부 심베랑 지방에서 발생한 일가족 7명의 AI 집단발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간 대 인간 감염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AI의 인간 대 인간 감염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감염사례, 감염자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과 다른 매개변수 등이 고려된 질병전이 모델을 활용, 인도네시아 AI 집단 발병 사례가 가금류가 아닌 인간 대 인간 감염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이 가족의 10세 소년은 죽은 가금류와 접촉한 숙모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바이러스를 옮

기는 등 다른 가족에게 AI를 전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이라 론지니 주니어는 “일가족 7명에게 집단 발병을 일으킨 AI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세계인은 첫 총알은 피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불행히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AI는 2003년 12월 이후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발병, 최소 195명이 숨졌으며 이중 인도네시아가 8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42명) 순으로 집계됐다.

WHO는 AI 바이러스가 인체 간 감염형태로 변종을 일으킬 경우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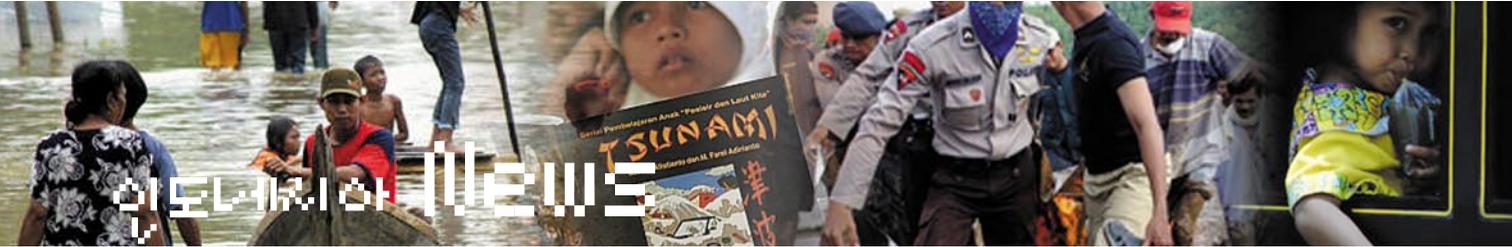
3자협상이 피랍자 19인 살렸다

탈레반이 28일 한국인 인질 19명 석방에 전격 합의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 교섭과 탈레반의 전략적 판단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탈레반은 이날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아프간 주둔 한국군 200여명의 연내 철수 ▷아프간 선교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피랍 초기부터 제시했던 조건으로 40여일간 탈레반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인질 사태를 끌어난 것치고는 탈레반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달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달인 ‘라마단’ 시작이라는 시기와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탈레반 지도부 석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탈레반 측의 분석이 이번 합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탈레반 지도부 석방의 끈을 잡고 있는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의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 것이 인질 석방 합의를 이끌어낸 주요 변수라고 꼽았다. 한국 외대 유달승 교수는 “다음달 10일께 미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아프간과 미국, 탈레반 3자 대화를 통한 평화



인도네시아 대선

협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자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탈레반의 존재와 역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탈레반으로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물밑에서 탈레반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해 당초 요구했던 군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탈레반의 여성 전사나 장기복역자의 경우 석방여부를 타진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인질 석방 합의와 관련해 “우리 쪽이 그동안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의 관할 밖이라는 점을 탈레반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께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달 ‘라마단’이 시작하는 것도 탈레반이 인질사태를 끌고 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 중동학회 장병욱 회장은 “라마단 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탈레반에게 작용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음달 10일께 시작하는 라마단 기간동안 이슬람 인들은 우리의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와 같은 대규모 특사를 단행하기도 해 인질석방에 합의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는 평이다.

단순한 테러 세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정치세력인 탈레반이 한국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합의 테이블로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대 이종화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 등의 직접적인 비난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결국 인질 억류를 통해 얻는 실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김중관 교수(국제통상학)도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명분 축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2008년 양질의 성장 기대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양질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수실

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16일 실업과 빈곤 완화를 위해 내년 국가예산안에 인프라 개발과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출을 늘렸다고 국정연설에서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독립기념일인 8월17일 전야에 국정연설을 행한다.

경제가 하반기에 성장모멘텀을 타고 지출을 확대한다면, 경제가 금년 말에 6.3%에서 내년에는 6.8%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유도요노 대통령이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GDP는 4,306조6천억 루피아이다. 내년 인플레이션은 6%,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7.5% 그리고 환율은 달러대 9,100루피아로 가정했다. 2008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836조4천억 루피아로 가정하고, 이 가운데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재 구입비용을 지난해보다 48%가 증가한 101조5천억 루피아로 책정했다.

비평가들은 대통령의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산하 경제사회연구소 차뎀 바스리 소장은 유도요노의 가정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공회의소의 모하맛 S. 히다야 소장, 국회의원 에미르 모이스 그리고 경제전문가 이츠누딘 누르시와 파우지 이츠산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수치와 가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평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에서 글로벌 경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및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 거시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전략적 인프라 개발, 교육 발전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재정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제성장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유도요노 대통령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공서비스부분 지출을 41% 늘려 67조3천억 루피아, 교육예산은 약 두 배를 늘려 48조3천억 루피아 그리고 보건지출은 세 배를 늘려 18조8천억 루피아로 책정했다. 지방정부는 전체개발비용의 7%에 해당하는 271조8천억 루피아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석유와 발전 분야에 각각 46조7천

억 루피아와 27조8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유가를 배럴 당 60달러로 책정했다. 대통령은 내년 예산적자를 금년에 GDP의 1.7%에서 2.1%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8년 국가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번째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예산안은 그의 취임 4년째 실적을 좌우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률을 현재 10%에서 8%로 낮추고 빈곤율도 현재 16%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부르하누딘 압둘라 중앙은행 총재는 성장을 위해 정부가 좀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출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위험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방한..군사.방산 협력 논의

조코 수안토(56.공군 대장)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이 김관진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24일 서울 일정으로 방한했다.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수안토 통합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 합참의장과 접견하고 한·인니 간 군사교류 협력 및 방산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합참은 김 의장 주관으로 국방부 연병장에서 수안토 사령관의 방한을 환영하는 의정행사를 개최했다.

수안토 사령관은 김 합참의장과 접견하고 김장수 국방장관을 예방하는 한편, 25일에는 대우조선과 해군 작전사령부 등을 방문한 뒤 26일 출국한다.

양국간 방산협력과 관련,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창정비를 지원하고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을 수출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는 CN-235 수송기를 도입한 바 있다.

부통령, CPO 관세 추가 인상 검토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유습 갈라 부통령은 21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CPO(팜오일원액)의 수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



기했다. 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변호사협회 대표들과 접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CPO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편차를 계산해, 현행 6.5%의 수출관세를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없는 식용유 소매가격은 폭등하기 전 킬로그램 당 6,500루피아였으나, 최근 1만 루피아를 웃돌고 있다.

아베, 위안부 결의안 통과로 국내외서 궁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질책을 받는 등 국내외적 압박에 직면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2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반향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주 초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포스트지가 20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결코 국력에 걸맞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포스트지는 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인도네시아 여성의 고통을 소개하며, 78세의 한 위안부 할머니는 “아베의 뺨따귀를 갈기고 싶다.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의회는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에 희생자 보상까지 요구하는 결의안을 지난주 발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안부 결의안은 또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의 입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제 전시 만행의 교과서 수록 운동을 펼치고 있는 타와라 요시푸미씨는 “위안부 결의안은 아베 총리와 국수주의자들에게 확실히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간토대의 하야시 히로후미 근대사 교수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베 총리와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안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제 위안부 만행에 대한 책을 여러권 펴낸 니시노 류미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여성활동 도교박물관’ 관장은 일본 내 주요 언론과 보수파 정치인들이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일본 지도자들은 전시 일본군의 비행을 시인할 경우 군사 대국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니시노 관장은 분석했다.

아세안, 핵에너지 안전망 구축 합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23일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핵 에너지 안전망’ 구축에 합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를 개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핵 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핵 에너지 안전망은 각국 에너지 관련 관리들이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협의해 내년 태국에서 열릴 아세안 에너지 장관회의 때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아세안의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안전과 무기화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원전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동남아에는 핵에너지를 다룰 전문가와 숙련된 기술자가 없다는 점, 원전을 위협할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등 안전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현재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이다.

태국 에너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가동 목표로 각각 2천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 사상 첫 핵 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첫 핵 발전소 건설에 나서 2016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2025년까지 1천MW급 원자로 4기를 건설해 전력 수요의 4%를 핵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2020년부터 가동할 목표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떠오르는 투자 유망국, 인도네시아

- 막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국내 기업들, 투자 진출 줄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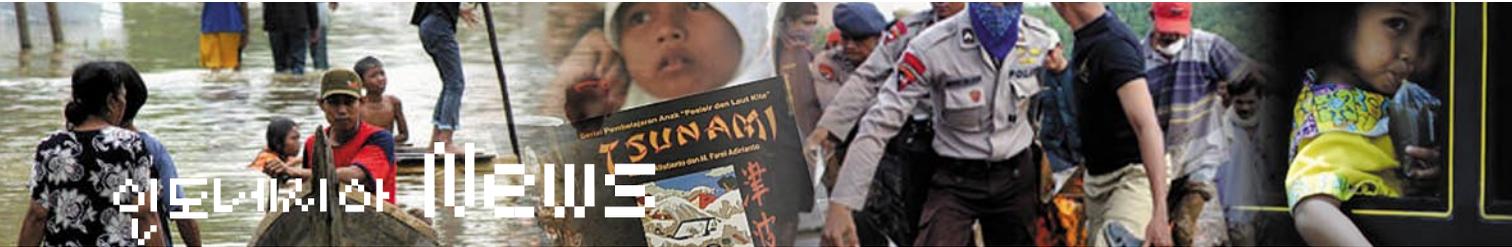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시아의 새로운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인도네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투자 진출 지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최근 정치·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6%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탄, 가스 등 막대한 천연자원과 인구 2억3천만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사분기 수출호조에 힘입어 5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했다. 또 2사분기에는 8.5%까지 이자율을 인하시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식 시장의 활황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까지 기록하며 경제성장 목표인 6%대의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 외국인 투자 꾸준히 증가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승인은 1718건에 156억6천만달러로 2005년 대비 30.4% 증가했다. 신규투자는 16.5% 감소했지만 현지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는 127.9%나 증가했다.

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



인도네시아 뉴스

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이나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 유치 관련 정책 등이 올해 개정,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실현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 의류, 기계 등 15개 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규정과 퇴직금 관련 노동 규정을 사회보장보험(잡스스텍)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다.

- 국내 기업, 투자 진출 활발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1200개사에 이른다. 대부분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자산업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기존의 자원개발, 건설, 민간투자사업(SOC) 등 기간산업 및 IT 분야에 이어 최근에는 에너지, 제약, 조선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현재 대 인도네시아 투자건수 및 금액은 누계기준으로 2727건, 121억4천만달러(인도네시아 정부 승인기준)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7위 투자국(건수기준 1위)으로 지난해에도 313건, 8억9천만달러의 투자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자카르타와 자바섬 등에 진출해 있다. 특히 자카르타에 인근에 위치한 짜까랑 공단, 땅그랑 지역, MM공단 등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했고 동 업체에 부품 및 중간재를 납품하는 100여개 이상의 업체들도 동반진출했다. KOTRA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현재는 소비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내수 및 해외시장으로 영업 환경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기관들, 투자 지원 강화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청 주관으로 약 300여명의 투자유치 사절단이 방한해 지역별 투자

유망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인들과 활발한 투자 상담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KOTRA에 따르면 투자 설명회 광고 이들 만에 2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해외투자진출팀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투자청과의 협력분야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협약을 맺고 내년 초에 투자청 안에 ‘Korea Desk’를 신설키로 했다.

심현석 중진공 국제협력사업처 아주협력업무팀장은 “현지에서 직원을 파견해 투자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을 적극 도와줄 방침이며 인도네시아 투자청이 사무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펀드 관심 커져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인도네시아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단일 컨트리 펀드는 피델리티 인도네시아 펀드가 유일하다. 지난해 전체 수익률은 65.2%, 지수 수익률은 69.9%를 기록했다. 피델리티 인도네시아 펀드는 펀드설치지역이 국내가 아닌 룩셈부르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역외자금(Off-Shore) 펀드다.

인도네시아 역내자금(On-Shore) 펀드는 국내에 전무한 상태지만 동남아시아 펀드로 묶여 투자하는 펀드는 여러 개가 판매되고 있다. 펀드매니저 A씨는 “단일 컨트리 펀드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이 밝지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국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중소 상담소 중진공 '코리아데스크'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는 상담창구인 코리아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조 약정(MOU)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과 체결했다고 6일 밝혔

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인도네시아 투자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서 근무할 산업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진공이 파견하는 산업협력관은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세미나, 투자설명회 등 행사를 주관한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상담과 자료조사, 투자전략과 정책자문 등 전문 상담활동과 양국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 파트너 알선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인네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지방

- 한국-인도네시아 1차 에너지 포럼 첫 성과 거둬 -

최근 인도네시아와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개최된 '제1차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The 1st Indonesia-Korea Energy Forum)'이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포럼의 성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통합 전문기업으로 잘 알려진 인네트(대표 이인섭)가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의 항만 건설 및 자원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와 관련 수마트라주 반유아 신군의회와 공식적인 비준동의를 받고 군의회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첫 에너지 포럼의 성과를 가시화 했다.

최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는 최근 에너지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상승과 지난해 12월 민간중심(B2B)의 에너지포럼 구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에 이은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 양국간의 잇달은 경제교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인네트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다각도로 고찰·준비해왔으며 인도네시아의 원유석탄, 천연가스의 발굴 외에 자원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



해 남부 수마트라주 반유아신(BANYUASIN)군 탄중아피아피(Tanjung Api-api)에 국제항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네트는 이를 위해 그간 수마트라 주정부 및 반유아신군의 공식 비준을 추진해오며 그 결과 9일 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4시) 반유아신군의회와 PT.PETRAS INDONESIA간의 MOU를 전격 체결하며 더욱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3만 ha(90,750,000평)에 면적에 달하는 항만 시설,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국제무역항에서부터 생명과화학단지, BANYUASIN 산업단지, BANYUASIN 자연구역 관광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도시 개발 전반적 내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인섭 인네트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통합과 씨네라인트 합병등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꾀해온 인네트에서 또다른 새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원개발과 항만건설에 나섰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첫 성과로 반유아신군의회의 공식적인 비준 통과로 인해 향후 국제항 건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자원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자신했다.

중앙은행 환율 Rp9,000 전망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중앙은행이 루피아 환율을 달러대 9,000루피아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고, 부르하누딘 압둘라 총재가 23일 말했다.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시장 문제를 우려해 최근에 이머징마켓에서 이탈하면서, 루피아는 금년에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실적이 나쁜 통화가 됐다. 22일 오전에 환율은 달러대 9,435루피아 근처 즉 화요일의 9,443루피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됐다. 루피아는 금년에 달러에 대해 4.7% 가장 절하됐다. “환율 안정을 위해 개입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새로운 평형점 즉 달러 대 9,000루피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압둘라 총재가 말했다.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환율범위

를 달러대 8,500~9,500루피아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예산안에는 금년과 내년 평균 환율을 달러대 9,100루피아로 예상했다.

좁은 인도, 화분, 노점상... 걸지마!!!

[스피드뉴스/자카르타] 남부자카르타 청년동상(Patung Pemuda)에서 대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잘란 시싱아망아라자(Jl. Sisimgangaraja)는 네 개의 차선과 두 개의 버스웨이가 있는 시내 주요도로 중 하나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거의 없다.

24일 오후 잘란 시싱아망아라자를 한 남자가 걷고 있다. 수안또(35)는 수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피해 1.5미터 폭이 좁은 보도를 걷고 있으나, 이마처도 중간에 대형화분이 막고 있다. “맞다. 길 중간에 화분이 놓여있고, 나뭇가지가 길로 뻗어 있다. 하지만 화분은 그래도 낫다. 진짜 화나는 것은 노점상이다” 라고 그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으며 말했다.

시 공원국 사르위 한디아니 국장은 당국이 자카르타를 아름답게 꾸미고 노점상의 난립을 막기 위해 화분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노점상을 막기 위해 화분을 놓아두었다. 우리의 의도대로 된다면, 노점상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분도 치울 것이다. 화분의 크기는 보도 폭에 비례한다” 라고 사르위 국장이 말했다. 공원국이 공공질서국과 함께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질서요원이 인력으로 노점상을 막는다면 공원국은 화분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이용해 노점상의 난립을 막는다” 라고 사르위 국장이 말했다.

자카르타 방문객이 즉시 불평하는 내용은 보행자도로의 열악한 상태이다. 보도 표면에 군데군데 난 구멍과 스넥부터 담배, 잡지 및 불법복제 CD와 VCD를 파는 노점상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표지판도 없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보도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보행공간을 제공한다면 시내 교통체증을 줄일 수도 있다. 환경단체 벨랑이(Pelangi)와 교통정책연구소가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보행공간 부족으로 버스나 택시를 타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자카르타 교통국과 공공질서국은 보행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스트라 2008년 자동차 판매 20% 증가 기대

[스피드뉴스/자카르타]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 PT Astra International Tbk는 자동차판매량이 금년에 40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20%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스트라 투자책임자 라차드 산또사는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아스트라도 성장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내년에 펀더멘털이 호조를 보여 경제성장률 6%, 금리 8%, 루피아 환율 달러대 9,200루피아 등 수준을 유지한다면 판매가 20%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산또사가 말했다. 현재 환율은 달러대 9,400루피아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8.25%이다. “아스트라는 판매 증가율 20% 그리고 시장점유율 48~56%를 목표하고 있다” 고 그가 덧붙였다.

산또사는 또한 내년에 고용상황이 나아진다면 오토바이 판매량이 2005년도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판매량이 2005년 대비 40% 감소했고, 오토바이 판매량은 13% 감소했다. 아스트라는 도요타, 다이하츠, 푸조 및 이스즈 등 여러 상표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혼다오토바이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아스트라는 또한 팜오일, 광산 및 인프라 건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스트라는 현재 세 개의 광산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종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Han Gang
한강

한국의 출발처~

(021) 7278 7802, 7278 7789

Jl. Wolter Monginsidi No. 99 Jakarta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728 894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 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	721	0271~2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루루 부동산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힐즈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	------	------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Sel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 Jend. Sudirman Kav. 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 Metro Dur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d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생활정보 가이드

버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삼성 화재	520 5511
LIG 손해보험	391 3101

●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앤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뽀뽀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환전

사강 머니체인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 기타

스폰지	7095 4771
-----	-----------

Lembaga Bahasa & Pendidikan Profesional

LBPP 



General Indonesian, Indonesian for Specific Purposes, Intensive Programs with Homestay,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for further information:

Jakarta

Gunung Sahari (021-6012505)
 Kelapa Gading (021-4529219/20)
 Pasar Minggu (021-79199482/3/4)
 Pengadengan (021-7943526)
 Pramuka (021-8583241)
 Slipi (021-5682211)

Bandung

Martadinata (022-4221117)

Bekasi

Galaxy (021-8851903)
 Kalimalang (021-88850573)

Bogor

Jalan Baru (0251-349080)
 Pakuan (0251-357782)

Surabaya

Ngagel (031-5022093)
 Veteran (031-3579571/2)

Tangerang

BSD (021-53160512/13)
 Cikokol (021-5543080/5548353)

Yogyakarta

Gejayan (0274-584922/550703)

Marketing: 021-7948704
 E-mail: marketing@lia.ac.id

행복 다섯

“돈도 없고, 있을 데도 없고, 술도 못 끊고 쪽 팔린다”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던 영수(황정민). 운영하던 가게는 망하고 애인 수연(공효진)과도 헤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간 경변까지 앓게 된 영수는 주변에 유학 간단 거짓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시골 요양원 ‘희망의 집’으로 내려간다.

“폐가 한 40% 정도 남았다는데, 아직 쓸 만 해요”

8년째 요양원 ‘희망의 집’에서 살며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은희(임수정). 숨이 차면 죽을 수도 있는 중증 폐질환 환자지만 은희는 밝고 낙천적이다. 자신의 병에 개의치 않고 연애에도 적극적인 은희는, 첫날부터 자꾸만 신경 쓰이던 영수에게 먼저 다가간다.

“우리 같이 살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땐 헤어지죠, 뭐”

지루한 시골 요양원, 미래 따윈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서 영수 역시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 보이는 은희에게 의지하게 되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밤을 함께 보내면서 보통의 커플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너 없으면 못살 것 같더니 이젠 너 때문에 미치겠어. 니가 먼저 얘기 좀 해줘, 헤어지자고……”

1년 뒤. 은희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영수는, 마냥 행복한 은희와는 달리 둘만의 생활이 점점 지루해진다. 궁상맞은 시골 생활도,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병약한 은희도 부담스러워진 영수 앞에 때마침 서울에서 수연이 찾아오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해봤던 연애. 그러나 크로스 스캔들은 상상 그 이상이다!

활기차고 귀엽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 열정적인 패션 컨설턴트 유나(엄정화)와 무머러스하고 다정다감한 호텔리어 민재(박용우)는 알콩달콩 친구 같은 커플! 그러나 연애 4년, 결혼 3년에 뜨겁기보단 편안한 생활형 부부.

여자에게 무심하고 차가운 워커홀릭 영준(이동건)과 지적인 외모와 차분한 성격의 조명 디자이너 소여(한채영)는 젊고 잘난, 남 부러울 것 없는 커플! 그러나 그저 남편과 아내로서만 살아가는, 설레임이라고 없는 부부다.

세상은 다 알고, 그들만 모르게 엇갈렸다!

패션 컨설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유나와 도발적인 실랑이를 벌이게 된 영준! 낯선 홍콩에서 운명처럼 민재와 마주치는 소여! 소여는 남편 영준이나 그녀조차 몰랐던 자신의 내면을 봐주는 남자 민재에게 흔들리고, 영준은 늘 웃지만 삶이 고달픈 여자, 유나가 눈에 밟힌다. 그 밤, 뜨겁게 엇갈린 두 커플 - 네 남녀는 위험하면서도 은밀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상황에 놓였다. 아직 그들은 서로 엇갈렸다는 걸 꿈에도 모른다. 그들의 크로스 연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고슴도치의 우아함

저자 뒤리엘 바르베리 | 역자 김관오 | 출판사 아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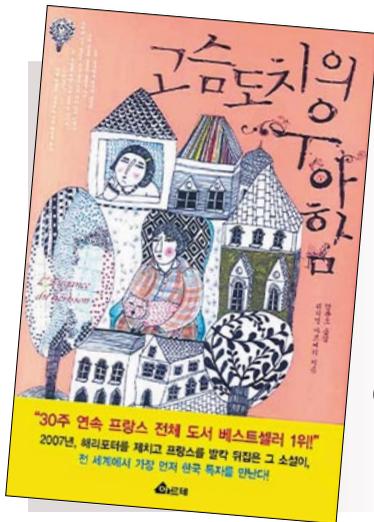
신네 살 수위 아줌마와 열두 살 천재소녀의 감동 어린 만남이 시작된다!

콧대 높고 못생긴 수위 아줌마 르네와 자살을 결심한 열두 살 천재소녀 팔로마의 기상천외한 발상을 그린 장편소설. 파리의 중심 지역이자 부자 구(區)의 하나인 6구와 7구는 예로부터 귀족들의 저택(hotel)과 살롱이 모여 있던 상류층 지역인 생 제르맹 데 프레가 있는 곳으로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부자 동네이자 멋진 동네이다.

그곳을 관통하는 총 2.25km에 달하는 기다란 일방통행로의 이름은 그르넬 가로, 그 입구격인 7번지에 7층짜리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부자 아파트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가난한 수위 아줌마인 르네, 그리고 이 아파트 6층에 사는 부유한 국회의원의 막내딸 팔로마. 소설은 같은 공간에 사는 독특한 존재들이 전혀 서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각자가 써내려간 일상의 성찰이 서로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양장본>

▶ 작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르네와 팔로마. 그들 각자가 써내려간 일상의 성찰(세계, 존재의 의미, 아름다움, 사랑, 분노 등등)이 서로 교차하면서 소설은 처음에는 잔잔하게, 중간에서는 울고 웃게, 마지막 장에서 이 둘의 극적인 상봉,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감동 깊게 그려내고 있다.



한밤중에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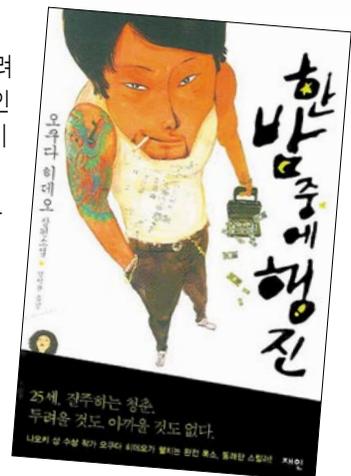
저자 오쿠다 히데오 | 역자 양역관 | 출판사 재인

목표는 10억 엔, 나사 풀린 갱스터와 야쿠자가 대결한다!

<남쪽으로 튀어>, <공중그네>, <면장 선거>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장편소설. 25세, 두려울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청춘들이, 도쿄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야쿠자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오쿠다 히데오가 펼치는 통쾌한 폭소 스릴러로, 일본에서 TV 드라마로 제작·방영되기도 하였다.

지칭 '청년 실업가' '타칭 2류 양아치' 인 요코야마 겐지, 명문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인 미타 그룹에 입사했지만 운동신경도 업무 능력도 떨어져 회사에서 늘 바보 취급을 받는 과집중증 환자 미타 소이치로, 모델 출신으로 사기꾼 아버지를 경멸하며 평범한 인생을 거부하는 구로가와 치에.

어딘가 나사가 풀린 것 같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이 세 사람은, 야쿠자의 도박장에 돈을 흠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주친다. 그들은 공동운명체가 되어 10억 엔을 목표로 완전 범죄를 꾸꾸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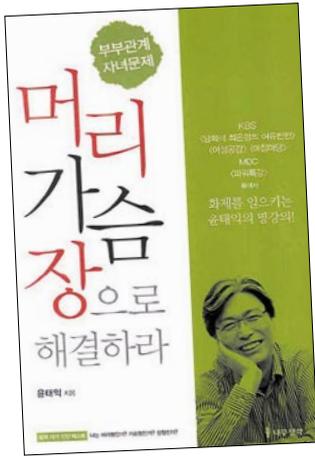


머리 가슴 장으로 해결하라 - 부부관계 자녀문제

저자 윤태익 | 출판사 나무생각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을 통해 사람의 성격과 의식을 바탕으로 한 명강의를 펼친 윤태익의 부부관계·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서. 한국형 에니어그램을 창출하여 인간의 타고난 성격을 '머리'와 '가슴', 그리고 '장'으로 분류하여 독특한 인간관계론을 펼쳐온 저자가, 이번에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저자는 한국형 에니어그램에 바탕을 둔 '머리형'과 '가슴형', 그리고 '장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여,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생활을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에 대해 다루면서, 잘 싸우는 법과 잘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자녀문제에 따른 부부 간의 갈등을 다루며, 자녀의 성격에 맞춘 교육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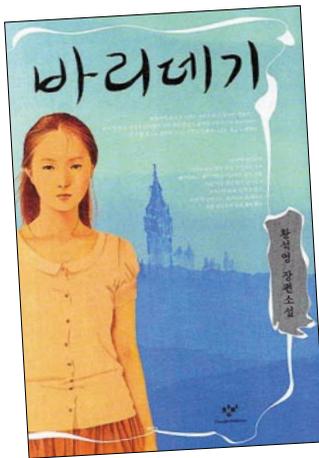


바리데기

저자 황석영 | 출판사 창비

중국대륙과 대양을 건너 런던에 정착한 탈북소녀 '바리'의 여정을 그린 황석영 신작소설. 작가는 소설 속에 '바리데기' 신화를 차용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21세기 현실을 박진감있게 녹여냈으며,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절망과 폭력, 전쟁과 테러의 모습을 담았다. 북한 청진에서 지방 관료의 일곱 딸 중 막내로 태어난 주인공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부모에 의해 숲속에 버려진다. 그런 그녀를 풍산개 '흰둥이'가 다시 데려다놓고, 버린 아이라고 '바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주인공은 심하게 앓고 난 뒤부터 영혼, 귀신, 짐승, 병어리 등과도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시간이 흘러 소련이 무너지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정치경제는 급속히 나빠지고 홍수로 죽는 이들이 늘어난다. 중국과 무역업을 하던 외삼촌은 결손이 나와 몰래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린다. 외삼촌 때문에 아버지는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어머니와 언니들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끈기

저자 김경민 | 그림 추덕영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아이 스스로 끈기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인성동화!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와 「어린이를 위한 화해」에 이은 어린이용 자기계발서로, '끈기'를 소재로 한 동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는 독자는 게으르고 태만한 주인공 나태한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나태한은 성품이 게으른 아이입니다. 우연히 주운 강아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엄마, 아빠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강아지 봉어빵을 키우게 되지만, 봉어빵을 키우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봉어빵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하는데...

☞ 독서 감상 포인트!

「어린이를 위한 끈기」는 힘겹게만 느껴지는 나태한의 도전을 재미난 동화와, 블로그형 일기로 흥미롭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읽는 독자는 나태한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9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대사관 인사이동

- ▶ 권용규 공사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사로 발령
- ◀ 김문환 참사관

- ▶ 차영철 참사관 : 외교부 본부 심의관으로 발령
- ◀ 오승 공사참사관

- ▶ 이용길 무관 : 국방부 본부로 발령
- ◀ 이완 무관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1.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한 바, 8.7자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 2. 상기 관련,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상세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칸 탈레반 무장세력 한국인 납치관련 신변안전 주의

1. 최근 아프칸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우리 국민 23명이 피납되어 그 중 1명이 살해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피납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모방 또는 유사범죄가 우려되므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시는 동포여러분께서도 심야시간 외출, 오지 단독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등 개인 신변안전에 평소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요구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여권법 시행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 지난 2007.4.20 발효된 개정 여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2007.7.24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여권발급 관련 변경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가.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시행령 제6조)
- 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제5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자 : 허가받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
 - 여권을 발급받은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단, 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인 자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단, 병무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증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다. 여권발급제한의 해제사유(시행령 제26조의 4)

-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변경전 : 외국인과 결혼하여)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변경 전 : 해외이주를 허가받은 경우)
- 라. 병역관계서류 제출자(시행규칙 제3조)
- 전체대상자
 -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
(변경 전 :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
 - 읍·면·동장의 병적증명서 제출자
 - 24세 이하의 남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
 - .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는 제외한다(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 소속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전환복무중인 자 (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 마. 여권의 신청수령방법(시행규칙 제6조)
- 신청과 수령하는 대리인이 동일인이고 그 내용이 여권발급신청서의 위임장으로 확인되면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변경 전 :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함)
- 바.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시행규칙 제6조 제6항)
-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여권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
(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 사. 병역해당자에 대한 복수여권 발급(시행규칙 제11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중인 자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복수여권을 발급
(변경 전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고 있는 자 중 의무종사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정업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야. 수수료(시행규칙 제 27조 관련 별표)
- 사진전사식과 사진부착식여권 구분(변경 전 : 구분하지 않았음)
3. 개정된 여권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개인법무, 투자, 지적재산권.

과산, 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관제사)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한인 회원님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할인(10~25%)**과
사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기간 : 2007년 9월 11일 ~ 10월 11일 까지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3 No.55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720-3246
HP. 0816-873-176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예약전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 여러분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일반전화 및 Fax/E-mail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운항 스케줄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자카르타 > 서울	KE628	21:40	06:40+1	매일
서울>자카르타	KE627	15:05	20:10	매일
덴파사르 > 서울	KE630	00:30	08:30	화,목,토
덴파사르 > 서울	KE630	00:30	11:30	월
서울 > 덴파사르	KE629	17:00	23:00	월,수,금
서울 > 덴파사르	KE629	20:10	02:10+1	일

기간: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0월 27일

Tel : (021) 521 - 2175~7

Fax : (021) 521 - 2184 / 2179

E-mail : hyunmelee@koreanair.com
stuty@koreanair.com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Garuda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www.garuda-indonesia.com

특별한 가격



이제는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즐기세요



Executive Class의 분위기와 가루다 인도네시아만이 제공하는 완벽한 기내 서비스로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당신의 귀한 비즈니스 여행길을 만끽하세요.

국제선 특별가격(이코노믹 클래스)
2007년 9월 15일까지 유효

아 시 아			중 국		
목적지(자카르타 출발)	시작가격(USD)	비 고	목적지(자카르타 출발)	시작가격(USD)	비 고
KUALA LUMPUR	135	최소 5인 이상*	SHANGHAI	390	최소 5인 이상*
SAIGON	250	최소 5인 이상*	BEIJING	400	최소 5인 이상*
SINGAPORE	120	최소 5인 이상*	CANTON	285	최소 5인 이상*
BANGKOK	160	최소 5인 이상*	호 주		
HONGKONG	320	최소 5인 이상*	SYDNEY/MELBOURNE	455	1인요금
TOKYO	581	1인요금	PERTH	235	최소 5인 이상*
OSAKA	545	1인요금			
SEOUL	510	1인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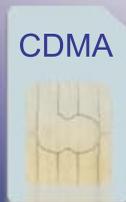
어린이(2~11세)는 성인요금의 75% 적용
상기 요금은 세금, 항공유 미포함

*) 최소 2인 이상, 1인 요금 준비되어 있음

자세한 문의는 24시간 콜센터나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24 jam 콜 센터 (일반전화요금)
0 807 1 807 807
또는 (021) 2351-9999
www.garuda-indonesia.com

CDMA ON, GSM ON



SCH-W579



imagine 2 ON phone is mine
Samsung is mine

삼성핸드폰 하나로 CDMA와 GSM을 동시에!

- CDMA 800/1900 MHz
- GSM 900/1800/1900 MHz
- Business Card Scanner
- Touch Screen
- 2 Mega Pixel Rotating Camera
- MicroSD External Memory
- Bluetooth Handsfree
- MP3 Player
- Offline Mode
- 72 Poly Ringtones & Dual Speakers



CUSTOMER SERVICE CONTACT CENTER: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삼성 디지털 플라자 뽉죽인다: 021-750-4010, 삼성코너 퍼부부르점: 021-8775-6676, AUTHORIZED SERVICE CENTER: PT. SARINDO NUSA PRATAMA Telp: (021) 6385-8088, Oke Shop Hotline: (021) 352-2777, Telesindo Shop Hotline: (021) 600-7878, TFONE Hotline: (021) 6385-0366, Electronic City SCBD: (021) 515-1177, Electronic Solution: 0807-1-808-808, Hartono Elektronika: (031) 732-1212

www.samsung.com/id

